

○ 서울대학교 김 ○ 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게 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평면적으로 접근해왔던 법률 숙문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기 전, 국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이 법률,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와는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며 어떠한 점에서 다를지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령, 오랜 기간의 정치적 이념의 갈등을 겪고, 냉전 시기 국제 정치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나 이후 국가재건과 경제 개발을 추진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일면 닮은 구석이 많아 보여, 앙골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앙골라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타국의 공통된 지점을 발견했을 때는 법이라는 것이 지정학적 위치의 차이를 초월하여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메니아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헌법을 직접 번역해보는 과정은 언어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법조문의, 특히 헌법의 논리적 구성과 문체를 익히기에 충분했습니다. 헌법의 각 조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원칙을 선언하면, 그 하위의 항들이 이를 구체화하며 법적 공백을 메꾸는 연역적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세부 상황을 규정하며 예외 사항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헌법의 문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법조문 특히 헌법의 치밀한 논리적 메커니즘과 문체를 체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을 직접 추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약 200개에 달하는 공약의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은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조사 결과, 예상보다도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이 낮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과 노인에게 대한 취업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부 및 산후 조리 지원, 교통의 편리성 증진 등 각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지방이 해당 지방 출신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거나, 낙후된 시설 및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특색 있는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공약 이행 과정을 전 소 조사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석 지점은 이행의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이전 회기에서는 원활히 추진되던 공약들이, 제가 검토를 진행한 이번 회기 동안에는 미비한 성과를 보이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이 누구지에 따라, 혹은 예산의 편성과 지방의 여건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만만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학술적 고민을 할 수 있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형사 절차 내 피해자의 소외 문제에 대한 판결문을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내 범죄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권을 비롯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지점과 맞닿아 있는 판결문을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피의자의 권리, 방어권 등에 집중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으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저 역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대법원2023도11371 판결문을 리서치 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판결문은 피해자의 탄원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학회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 탐구하면서 피해자가 신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가 정리하여 제출하면 이 보고서가 양형절차에서 참고되는 피해자영향평가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양형절차에 고려되어야 함을 논증하는 논문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객관적인 전문가가 작성한다는 점, 범죄 피해가 일어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작성하기에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단순히 공판 단계에서의 증인 신문 절차만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은 없을지라도 양형 절차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도 탄원서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제2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양형을 가중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원서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에는 상이한 수준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나 엄벌주의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발언권과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고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법원 판결문으로 가기까지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진 법리 판단과 양형 판단을 정독하면서 법관이 구축하는 논리가 어떻게 판결문의 형태로 도출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순서대로 제시함으로써 법관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채택하고 또 어떠한 주장은 용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논리적 사고력을 정교히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게 단순한 봉사를 넘어, 헌법부터 지자체의 공약, 그리고 법관의 논리를 담은 판결문까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통찰은 향후 법조인으로서는 나아갈 길에 견고한 밑거름이 되어주리라 확신합니다.

○ 연세대학교 이 ○ 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읽으며 시민에 의한 사법 감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겨울 방학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사법부의 판결과 행정부의 활동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처음 접하는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공약 이행을 조사는 법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은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했다. 단순히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안고 각 봉사 과제에 임했다.

대법원 2022두4352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문을 분석하며 행정 처분과 기본권 침해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깊이 고민했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행정권의 발동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핵심적인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논리 구조를 꼼꼼히 따라가 보았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침해되는 권리의 중대성을 비교 형량하는 판결문을 읽으며 행정법의 기본 원리들이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공법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 국가 권력의 한계와 국민의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대법원 2021다213316 손해배상 소의 판결문을 읽으면서는 의료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지 절감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치밀한 논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현상과 같이 명확한 인과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과학의 영역과 달리 인체를 다루는 의료 분야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법적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무척 까다롭다. 복잡한 화학 기호와 인체 생리 메커니즘이 얹힌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재판부의 시각을 추적했다.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의료적 사실 관계를 법적 요건에 대입해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실 관계 확정이라는 법률 실무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과 울산광역시 남구 서동욱 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는 무려 열한 시간이 소요된 매우 고되고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가장 큰 보람을 안겨준 과제였다. 각 지자체의 선거 공약집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끈기 있게 수행했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었다. 통계적 기법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방대한 예산 자료의 패턴을 읽어내고 공약 이행의 진척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에 몰입했다. 숫자로 표현된 예산서 이면에 숨겨진 지자체의 정책적 의도와 행정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작업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대법원 2020두3689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판결문 리서치는 평소 경제 현상과 법의 교차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과제였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 행위와 같은 독과점 규제 사안을 다루는 이 판결문을 통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공정 거래 법리의 진수를 엿볼 수 있었다. 산업 조직론에서 다루는 시장 확장의 기준이나 기업의 가격 결정 모형 그리고 진입 장벽과 같은 경제학적 개념들이 대법원 판결문 속에서 어떻게 법률적 언어로 번역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지적 쾌감을 선사했다.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대법원 2021후11070 거절결정 특 판결문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으로 고도의 기술적 이해도를 요구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복잡한 기술적 사상과 작동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다. 컴퓨터 알고리즘의 구조나 물질의 화학적 결합 원리 그리고 물리적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청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의 기술적 쟁점을 날카롭게 분석해 보았다. 고도화된 현대 과학 기술의 원리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특허법의 역할과 법원의 기술 해석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지식 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지 깊이 숙고하게 만든 귀중한 시간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 형사3부 형사15부 형사11부의 재판문 연이어 참관한 법정 모니터링은 차가운 서류 밖의 생생하고 뜨거운 법정을 온몸으로 마주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엄숙한 법정 안에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모습은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엿갈리는 진술들과 그 속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려는 예리한 질문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변호인의 변론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형사소송법에서 활자로만 익혔던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가 실제 재판 기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판사의 공정한 소송 지휘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임을 법정의 공기를 마시며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한 스펙 쌓기나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차원 넓혀준 훌륭한 실무 수업 과정과도 같았다. 데이터에 기반한 치밀하고 객관적인 분석력과 복잡한 과학 기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소양 그리고 공정 거래와 거시적인 경제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향후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할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모니터 화면으로 마주한 수백 페이지의 난해한 판결문들과 법정에서 메아리치던 절박한 변론의 목소리들 그리고 지자체 예산서에 빼곡하게 적혀 있던 수많은 숫자들은 결국 모두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살아 숨 쉬는 실체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든든한 자양분으로 삼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역동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날카로운 지성을 끊임없이 연마해 나갈 것이다.

○ 고려대학교 엄 ○ 한

2025년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까지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번 가을학기에 이어 이번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거버넌스를 점검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과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겨울학기에는 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지방행정 영역에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도를 조사하며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한 대상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인 최재훈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와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 이행 현황이었습니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맺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자, 향후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약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가를 넘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의 임기가 올해 6월에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공약이행도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약집과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진행 단계와 완료 여부를 정리하면서, 수치와 표현 뒤에 숨겨진 행정의 현실을 읽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특히 느낀 점은 '이행'이라는 말의 무게였습니다. 일부 공약은 계획 수립이나 용역 착수 단계에서도 '추진 중'으로 분류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 온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말 뿐인 형식적인 이행과 실질적인 이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고, 공약 평가가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행정의 진정성을 가능하는 작업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약 이행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하위 행정체계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은 곧 책임성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공약은 지역 주민의 기대가 집약된 약속이기에, 그 이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료 공개 수준이나 설명의 구체성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이는 정보 접근성이 곧 주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을학기에 수행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경험도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점검과 후속 관리가 필요한지를 체감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점검이 '국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자료 분

석을 통해 보완된다는 점에서, 두 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중앙이든 지방이든 권한을 가진 기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보건정책관리학을 전공하며 정책의 기획과 평가,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배워왔습니다. 공약 이행도 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정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효율성,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정책평가의 개념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행정의 복잡성과 제약 요인도 함께 보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를 통해 저는 지켜보는 시민,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 이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일상적 실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돌아오는 선거에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학기과 겨울학기 두 차례의 봉사활동은 제게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이 단지 이론 속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형성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행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정

이번 2025 겨울학기는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처음 참여했던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전반적인 활동 방식과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번 겨울학기 활동에서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봉사를 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에 는 겨울학기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하듯 비롯해 판례를 분석하여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판결문 리서치 등에 참여하였는데,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및 소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 공약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는 작업이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나는 제주도지사 오영훈과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내세운 공약들을 맡아 이행을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약 이행 여부를 단순히 표면적인 발표나 보도자료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공식 자료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점수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행정적·제도적 절차들이 뒤따른다는 점 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렇듯 공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특정 사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검토하고, 그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지난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었다. 이번 겨울학기에는 형사사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례(2020도 1538)와 야간주거침입절

도·업무방해 판례(2022도 5573), 민사사건인 소유권 이전 등기 판례(2023다 203894)와 토지 인도 판례(2024다 293016), 총 네 가지를 다루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에 대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취한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는 듯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한순간에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 판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때에 절도 고의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침입 이전부터 절도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때에 절도 고의를 일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심판시에 대해 법리 오해라고 결론 지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의 절도 고의 고려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 판례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효력 발생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관계를 중여로 인

지한 시점을 전소 1심 판결이 난 때로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유류

○ 중앙대학교 김 ○ 린

법률연맹에서 진행한 대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법률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활동은 단순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법과 행정이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은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동시에 공공정책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49, 2024다228630, 2024다293016, 2025다21010, 2025도32962 등 총 다섯 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는 법률 용어와 판결문의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이유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판결문이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점차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판결의 결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법적 논증의 중요성과 사법 판단의 논리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법원의 판단이 단순히 법 조문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사건의 쟁점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각각 다른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법률문서를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법적 사고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는 활동에서는 신우철 단체장과 노관규 단체장의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과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공약 자료와 관련 정책을 조사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약 점검 활동을 통해 정책은 단순히 발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공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각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법률과 공공정책을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법적 판단의 논리와 구조를 학습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공약 점검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과 행정의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사회 문제를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번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시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법과 행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문적·실천적 노력을 이어가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 유 ○ 람

법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택하여 많은 법학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추상적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실제 우리 사회의 핵심 시스템인 지방자치, 언론,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를 꿈꾸는 한 학생이자, 시민으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업무 절차를 밟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의 성패가 선거 당시 설계되었던 공약의 구체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업무 절차를 갖춘 공약일수록 실제 이행도에서 확연한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에 있는 어려운 행정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 용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행정 자료는 일반 시민이 공약 이행률을 파악하는 데 장벽이 될 것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용어를 쉽게 풀어쓴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발간된 10대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사회적 사건을 두고도 언론사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해석을 대조하면서 시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매체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할 확증 편향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현실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특정 대상을 향한 감정적 비난에 치중한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언론 본연의 임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사안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주로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사의 기사만을 접하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사건을 다루어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사안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메시지 전송 행위 자체만으로 성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아동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익 침해의 결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발하였고 이 가능성만으로 성적 학대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현실적 결과 발생'과 '발생 가능성'이라는 법적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법

영역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상적으로 혼용하는 언어들이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2025년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주도적으로 법과 정치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활동하기 이전에는 교과서적인 이론에 매몰되어 사회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사회 시스템을 직접 감시하고 분석하며 법과 정책이 시민의 삶에 투영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한양대학교 강 ○ 연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활동으로 OT, 공통봉사(울산 북구,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분석), 판결문리서치(2회),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설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이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걸 느꼈다.

1. OT

-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기본 활동 이념 및 다양한 법률 봉사 활동의 구성을 느낄 수 있었음. 이에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을 봉사활동 항목으로 선정하여, 향후 법조인, 법조기자 쪽의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 공통봉사활동(울산 북구,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분석)

- 흔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점은, 출마 및 선거 시기이다. 그러나 해당 시기 이후에도 퇴임할 순간이 다가올 때에 '과연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도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을까?'라는 질문이 스쳐 지나갈지라도, 정말 어느 정도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는 잘 없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품을 수 있는 간단한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

- 울산 북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기사를 통해서도 공약 이행률이 약 95% 이상이라고 들었던 바가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약 이행이 되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공약을 평가할 때에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3점 이하의 점수를 배정하는데, 울산 북구의 경우 3점 이하의 점수를 찾아보는 경우가 잘 없는 점에서 우수하였다. 하지만 울산 동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유사해 보이는 공약들 중에서 단 하나만 이행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사업의 진행에 있어 같은 영역으로 분류될지라도 모든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줄 알아야겠다는 것을 배웠다.

- 만약 언젠가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모니터링 제도가 있음을 스스로 경각하여 철저하게 정책과 공약을 만들고 이행해야겠다는 배웠다. 아쉬웠던 점은, 지역이 멀어 직접 가서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효능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3. 개인봉사활동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3.1. 판결문리서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특이하거나 핵심이 되는 최근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본 뒤에, 1심과 2심 재판까지 판결문을 수집하여 이를 보고하는 활동을 거쳤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마음에 드는 대법원 판결문이었지만 1심과 2심 재판을 공개 청구하더라도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는 판례가 있어, 쉽게 1-2-3심의 판례를 전부 찾아보기가 어려운 판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학부 수업에서 배웠던 형법 개념이 응용되는 판례(포괄일죄 등)를 직접 내용을 읽고 정리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는 독해력,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다음 봉사활동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도 판결문리서치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보고 싶다. 다만, 사법3법의 개정을 통해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판결문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경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3.2 언론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통해서 10대일간지의 사설

기사를 스크랩하여 통계적으로 보도 경향 및 빈도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157개의 사실 기사를 스크랩하였는

데, 양이 많은 사실 기사를 전부 수집하여 빈도를 통계 내기 위해 하나하나 개수를 세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10대일간지의 각 경향성, 그리고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중도/진보의 보도 경향이 다른 것을 직접 파악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전작권 및 주한미군 이슈가 이번 언론모니터링 대상 기한(2월 4째주)에 가장 많이 보도된 이슈 중 하나였는데, 보수의 경우 미국과 북한 이슈 사이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경각하였고, 진보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방식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배적인 이슈가 있으면 확실히 그쪽으로 보도의 주제가 쏠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 봉사활동 기회가 있다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윤

지난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처음 경험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에게 법적 사고의 기초를 다져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법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넓혀주었고, 그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자 이번 겨울학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봉사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가 나아갈 길을 구체화하고 법의 본질을 한층 깊게 탐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이었던 판결문 리서치는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뒤, 핵심 쟁점에 대한 저의 비판적 견해와 성찰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판결 내용을 기록하는 단순한 작업이라 생각했으나, 판결문의 논리를 세밀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법이 단순한 고착된 규범이 아니라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살아 있는 체계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인 2025도9446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이 든 상자라 뒤바뀐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관리법상의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언의 사전적 정의에 매몰되지 않고 마약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해석으로, 우리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과 입법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관련 판례(대법원 2025도7992)를 통해서도 법의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논리로 반박했으나, 대법원은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기보다,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취지를 살리는 판단을 내린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교해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범죄, 마약 및 음주운전(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아동학대 등 다양한 최신 판례를 접하며 우리 법원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과정은 저에게 법이 단순한 조문의 해석을 넘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더불어 필수 활동으로 진행된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 역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각 지자체장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하며, 시민과의 약속이 선

언에 그치는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이 실천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법과 정치가 우리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사회적 규칙'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을 단순한 학문의 대상이 아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살아 있는 도구로 바라보며 정진하고자 합니다.

○ 서울대학교 이 ○ 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법을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체감하게 해 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학교를 다니면서 법을 부분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해 왔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 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법이 어떻게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은 여러 국가의 헌법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각국의 헌법 조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예컨대 기본권 조항 하나를 번역할 때에도 일상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 가지는 법적 강제성과 재량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했고, 이를 한국어로 옮길 때는 우리 헌법 체계와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고, 의역을 하면 원문의 법적 뉘앙스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균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법률 용어 하나가 갖는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위헌 심사, 권력분립, 비상사태 조항 등과 관련된 부분을 번역하면서 각국이 국가 권력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비교법적 시각을 기르며 어학적 역량과 법학에 대한 이해 모두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 책임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수집하고, 이를 실제 정책 집행 자료와 대조하여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완료' 혹은 '미완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여부, 관련 조례 제·개정, 사업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약의 표현이 추상적일수록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무관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이후의 감시와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조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평가해야 하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앞으로 법이라는 분야를 대할 때 제가 취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법은 법전 속 조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해석되고, 정철을 통해 실현되며, 시민의 감시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되는 살아 있는 체계임을 체감했습니다. 번역 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보편성과 차이를 이해했고, 공약 이행을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실천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단지 시험과 학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경험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며, 제게 깊은 성찰과 동기를

남긴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서강대학교 김 ○ 석

봉사활동은 내가 사법 정의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거나 봉사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봉사의 시작은 겨울 동안 비어있는 시간을 무엇으로든 채우고 싶었던 사소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에 불과했다. 이렇듯 비록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봉사의 과정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

봉사의 시작은 공약 이행을 조사였다. 봉사활동 신청이 늦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공약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조사해야 했다. 더군다나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기에 부담은 더욱 심했다. 그러나 공약을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사와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가졌던 부담의 이유가 부끄러워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웠던 공약 중 많은 것들은 최소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완성되지 않은 공약들도 물론 많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시도되었다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심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길 바랐던 마음을 발견했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지역 나아가 국가의 쇠퇴를 바랐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고, 반성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만 되고 구체적인 추진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약은 일종의 약속이다. 시민들은 그 약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을 주었다. 그렇기에 공약의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약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은 약속의 주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 약속은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가 했던 봉사는 아르메니아와 호주 헌법 번역 봉사였다. 헌법 번역 봉사에서 각 국가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공부하며 들여다보는 일도 재미있었지만 해당 국가 전반에 대해 학습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감명 깊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는 깊은 아픔을 가진 국가이다. 대학살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소련도 튀르키예와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학살에 침묵했다. 호주는 어떠한가. 호주는 오랜 기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죄수의 수용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대다수는 죽었다. 골드러시로 인해 호주의 자원은 착취당했다. 골드러시가 호주의 민주화와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다수의 피 위에 세워졌다.

두 국가의 역사에서 정의에 대해 생각한다. 아르메니아와 호주가 겪은 일이 특수한가? 당장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도 두 국가 못지않은 큰 진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인가? 장기전으로 전환된 우리 전쟁, 미국-이란 전쟁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보자면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지금의 세태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가 된다. 강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으로 휘두른다. 이 시점에서 정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정의 그 자체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계는 필연적으로 위태롭다.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봉사는 판결문 리서치이다. 판결문 리서치는 총 세 건 진행했는데 각각은 상속 증여세의 수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계약 갱신 기대권과 음성권 침해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상속 증여세에 관한 판결문에서 법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법을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의적이고 애매한 부분은 존재한다. 해당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제력으로 법률에서 말하는 '대가의 지급'을 이루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원고의 소득 내역과 자산의 획득 경위가 면밀히 검토되었고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한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하나의 완결된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 리서치 이전에는 법은 명확하고 구체적

인 사실이 이것에 해당하는지만 검토하면 된다고 어렵פות이 생각했는데 현실의 법은 복잡했고 사실을 이에 대응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관련 판결문에서 법과 감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해당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범죄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저지른 인물이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범죄에 관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의 언어로 순화해야 했기에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감정이라는 법원에서 원고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처음에는 법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관련 법을 살펴보니 그러한 판단은 정당했고 오히려 나의 감정이 내린 판단은 틀렸다. 이를 통해 법은 감정이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정을 앞세운 판단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에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법인 것이다. 법은 잔혹한 형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법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러나 법은 여기에 더해 법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이루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 훌륭한 판사는 정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갱신기대권 인정과 음성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법률에 사실이 대응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판결문의 흥미로웠던 점은 음성권 침해를 다룬 부분이었다. 음성권은 헌법상 보호하는 인격권이다. 그러나 주체 간 이익이 충돌한다면 외양상 음성권 침해로 보이는 사건이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법은 부분들에 대응하는 파편적인 문서가 아닌 사회의 전체를 반영하여 구성된 엄밀한 체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가졌던 마음, 아르메니아와 호주의 역사, 각 판결문에 나타난 법체계에서 정의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았다. 지금 당장 정의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는 알게 되었다. 앞으로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 나름의 정의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 고려대학교 이 ○ 호

2024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지난번 봉사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입법부를 감사하는 것이면, 이번 봉사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찌보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약 이행을 조사가 단순한 한 명이 한 평가이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라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약 이행률을 평가할 때 자료를 찾고 어떤 점을 우선시해 판단해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이전 봉사활동자들이 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잘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연천군수의 공약을 먼저 확인할 때 공약 개수가 적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료의 부실함으로 인해 봉사활동 이행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언론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행정이라 할 지라도 당선인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 사업의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업의 완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천군수의 공약을 조사하면서 언론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부천시장의 공약은 약 150개로 44개인 연천군수

의 공약보다 3배가 넘습니다. 양이 방대하기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천군보다 인구가 많은 부천시 특성상 시의 정책을 알려주는 자료가 많아 연천군만큼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

다. 특히, 시 자체에서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사이트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 자체의 평가를 보고 판단하기에 하나 걸리는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진 자료나 회의 보고서와 같은 구체적인 첨부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기 힘든 공약임이 보이지만 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공약 이행의 증거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정한 공약 이행을 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인데 부천시청 사이트에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쉬운 점은 GTX-B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하는 범국가적 정책의 진척도를 알려주는 통합 정보 전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위키와 같이 시간대별로 공사나 사업의 진행도를 알려주는 공식적인 사이트나 언론이 있었으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봉사활동인 공약 이행을 점검을 하고 느낀 점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저와 이전 봉사자가 한 공약 이행을 조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표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제가 선택한 봉사활동인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 사설과 10대 경제지 사설을 각 한 기간씩 조사해 총 두 번의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각 기간의 사설은 약 150개 정도가 있었고 그 사설들은 약 5~10개 정도의 주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공약 모니터링과 비슷하게 양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전에 언론모니터링을 했던 친구의 보고서와 자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언론사의 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학에서 편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과 비슷한 생각인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편향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 편향을 이겨내기 위해선 반대 의견을 들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사설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진 많은 양의 사설을 읽어본 적이 없어 편향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사설을 읽고 나니 나 먼저 편향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길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모니터링과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고 나니 누군가 이 글을 많이 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봉사활동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 좋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 소감문을 마무리 합니다.

○ 전북대학교 임 ○ 형

오늘날 법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유튜브나 뉴스의 댓글을 살펴보면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논쟁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관심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법과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겨울학기 대학생법정지 봉사단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외국 헌법 번역,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여러 활동 가운데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사법 개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법 불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사법 제도에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판결문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왜곡된 정보를 통해 사법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각 판례에 대해 용어 해설, 사실관계 정리, 쟁점 정리, 판결 요지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판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리서치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해당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 활동은 나에게도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학교에서 여러 법학 과목을 수강하며 판례 중심의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 판결문을 시간을 들여 읽어보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접했던 추상적인 법 조문이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판결문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반복해서 읽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판결 요지와 결과를 스스로 예측해보는 과정은 법적 사고를 훈련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예컨대 2024다293016 [토지인도] 사건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즉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2024다296763 [소유권이 전등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 주문에 기재된 수치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한 사례 역시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세밀한 논리와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이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법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정치인의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보게 되었다. 법과 정치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맡은 정치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이행을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행정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활동의 연장선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약을 직접 찾아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기도 하였다.

외국 헌법 번역 활동 또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바누아투,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등 네 개국 헌법의 일부 조문을 번역하였다. 이전에 헌법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학습한 경험이 있었지만 외국 헌법을 직접 번역하며 읽어보는 경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특히 바누아투 헌법을 번역할 때에는 영어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은 분량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다.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많았으며 특히 토지와 관련된 규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관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헌법이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가 결국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여러 활동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배움을 주었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 봉사의 결과물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법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서 언급했듯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정확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이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졌든 앞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러한 경험을 나누며 법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법과 정치가 더욱 건강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중앙대학교 오 ○ 원

법률 관련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로스쿨 입학 준비하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법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는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진짜로 배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다.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었고, 이번 학기의 세 가지 활동은 그 기대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었다.

번역 봉사로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일부를 국역하는 작업을 맡았다. 처음에는 헌법이라는 익숙한 이름에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법률 용어는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뜻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 언어가 풍기는 뉘앙스와 어감을 그대로 살려야 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문장의 정밀함에 대해 나름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업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의 정확성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것인지를 체감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국가로, 헌법 체계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대륙법 전통과도, 영미법 전통과도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었다. 단순히 단어를 찾아 치환하는 것으로는 그 결이 살아나지 않았고, 해당 조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이해한 뒤에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옮길 수 있었다. 번역된 한 문장이 실제로 누군가의 권리를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니,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더 신중해졌다. 국어를 공부하면서 늘 '정확한 언어'의 중요성을 배워왔지만, 법률 번역은 그 정확성이 단순한 문장의 완성도를 넘어 사람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준 경험이었다. 시간이 빠듯했던 탓에 충분히 되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아쉬움 자체가 법률 언어의 무게를 가르쳐준 일부였다고 생각한다. 법률봉사라는 것이 선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실감했다.

공약이행을 조사 활동에서는 증평균 이재영 군수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공약이라는 것을 선거 때 발표되고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무언가로 막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런데 직접 공약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하면서,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맺는 공적 약속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불분명한 경우, 추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단순히 '했다' '안 했다'로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많았다.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는 결국 법적 판단의 문제와 닮아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과정.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약이행률 조사는 그 과정을 가장 소박한 형태로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런 조사를 시민 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법은 법원과 국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구석구석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 역시 법률 봉사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했다.

OT 회신 문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처음에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기한 안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단순한 절차처럼 보였지만, 문제를 직접 읽고 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고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읽고, 관련 규정이나 원

칙을 찾아 연결하고, 그 결론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할 사고의 형태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미리 맛볼 수 있었다.

특히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법학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막막함이 법학 공부의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활동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경험이었다.

세 가지 활동을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배운 것이 있다. 법은 그것이 번역이든, 조사든, 서면이든 간에 언제나 누군가의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률 문서의 단어 하나, 공약 항목 하나, 서면의 논리 하나가 결국 사람의 권리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봉사를 통해 조금씩 실감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법을 다뤄야 한다는 것도. 시간이 부족했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 아쉬움이 오히려 다음 활동을 더 성실하게 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는 더 미리 준비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태도로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언젠가 실제로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작지만 단단한 바탕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 서울대학교 강 ○ 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 학기에도 참여했다. 지난 학기 소감문을 열어보니 이번 학기에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는 다짐과 기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했지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인턴 활동을 하게 돼서 의지와 달리 기한을 잘 지키지 못해 스스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먼저 지난 학기와 같이 해외법 번역 봉사활동을 했다. 영어로 된 예멘 헌법 약 5페이지를 담당하게 됐고, 내용은 주로 하원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난 학기에는 왕정이면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스웨덴의 헌법을 번역했기에, 예멘과 스웨덴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번역할 수 있던 좋은 계기가 됐다. 예멘만의 독특한 특징은 대통령위원회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국가의 특성을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헌법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겨울학기 필수 활동인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에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를 담당했다. 대전광역시는 내 고향이고, 세종특별시는 현재 본가의 위치라서 조사 과정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공약들의 필요 정도 등을 판단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실제 공약이 달성됐는지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활동 덕분에 정말 다양한 공약들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어떤 걸림돌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는지, 시장과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새롭게 배우는 점이 많았다. 주요 정보 수집 경로는 기사를 통해서였는데, 다시 한번 언론의 중요성을 체감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분권과 연계에 대해서도 깨닫는 바가 많았다. 일례로 현 정부에서 AI, 반도체 등의 사업 강화 기조가 미래 클러스터 조성 같은 대전광역시의 공약과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언론 조명도가 높아지는 연계를 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중앙 정부와 관계 없이 대전광역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활성화, 온천 관광 사업 확대 등의 공약의 추진 과정을 보며 지자체만의 행정 기능을 실감하기도 했다. 올해 6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불확기 봉사활동에도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뤘는지 직접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겠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이번 학기 새롭게 접해보는 활동이었다. 이슈, 사실, 경제 사실분석 중 경제 사실 분석 활동을 했다. 평소 경제 관련 뉴스를 잘 읽지 않다 보니 스스로 경제 문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

다. 실제로 경제 사설을 읽고 분석해보면서 내가 몰랐던 한국의 경제 현상을 알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코스피6000 돌파'와 같은 키워드만 접하면 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설은 그러한 경제 현상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줌으로써 개인이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에는 분석해보고 싶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재판 방청 활동에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 다시 한 번 봄학기에는 기한을 엄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글을 마친다.

○ 건국대학교 강 ○ 연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이번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가을학기에 해보지 못했던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내가 속한 지역의 핵심 공약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약이행률조사를 접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공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행 정도를 조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지역에 따라 공약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어 공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지자체장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이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와도 직결됨을 체감하면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을 방청한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으나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재판을 방청할 때에는 재판 진행 과정, 판사, 검사, 변호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낯설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재판들을 방청하면서 대략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런 공소사실이 있을 때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서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내가 판사라면, 검사라면, 변호인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법조인의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만 방청하며 주로 비슷한 사건들을 법정 모니터링 한 것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이후에는 민사 재판과 행정 재판을 방청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의 주제는 강제추행과 무고폭행이었습니다.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들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쟁점에 따라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내렸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법과 판결문에 사용된 표현들을 일반인들이 접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법률 용어를 순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현재 법률 용어 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판결문 리서치가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접할 때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뜻깊었으며, 미래에 법조인이 되어서 가져야할 태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강 ○ 진

이번 학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장래에 법조인의 길을 고민하면서, 법이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낯선 외

국의 헌법 조문을 번역하는 작업에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점검하고, 나아가 최첨단 IT 기술이 빚어낸 최신 대법원판례를 분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법과 사회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여정이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첫째, 가명 '처리' 정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리서치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전통적 기본권과 '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개발 등 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법정에서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논리를 통해 균형을 찾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을 분석하면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사법부가 기존 법 체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기술 범죄는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등장'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집행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입법과 사법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3다311184 판결을 통해서 법원의 손해배상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손해 발생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권리 보호와 책임의 범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책임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잠비아 헌법과 알바니아 헌법 번역 봉사에도 참여하였다.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헌법 조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서는 작업이었다. 각 국가의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법을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의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법이 우리 삶과 산업, 그리고 미래 기술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근래 'AI 붐'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인공지능융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권 ○ 담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장이 스스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행정은 여러 여건과 변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조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외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단순한 비판이나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더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에게 법 해석의 복잡함과 무게를 직접 체감하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정지 사건, 공정거래 사건, 살인미수 사건 등 여러 유형의 판결문을 검토하였는데, 서로 다른 분야의 사건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같은 법조문이나 유사한 개념도 어떤 취지와 맥락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관련 사건에서는 '처리', '가명처리'와 같은 개념의 해석이 단순한 문언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현대 사회의 기술 환경 속에서 법이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의 변경이나 정보 배열 방식과 같은 문제도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래서 법이 이를 얼마나 신중하고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혁신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공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행위의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에 먼저 눈이 갔지만, 판결문을 읽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함께 고려하면서 공정한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 활동을 거치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법은 단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 모두 시민이 공공의 정보에 더 잘 접근하고 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저 역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고 판단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법과 제도를 훨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판단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신중하게 살피며, 그 결론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공약이행을 조사에서는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해석과 논증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경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제가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사회를 해석하는 틀이자, 동시에 사회를 더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단순한 시험 과목이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와 사람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길 ○ 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일련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식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또 어떻게 소비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때로는 보호하지 못하는지를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헌법 번역봉사와 다양한 판결 리서치,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각각 성격이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 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성찰을 남겼다.

우선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짐바브웨 헌법 번역봉사는 비교법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단순히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해당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헌법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예컨대 대통령 권한, 사법부의 독립, 기본권 보

장 방식 등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헌법이라는 규범이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각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이나 권력 집중 문제가 지적되는 국가의 헌법을 접하며 헌법 조문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판례리서치 활동 역시 매우 실무적이면서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를 조사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속에서 어떻게 침해되고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의 편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향후 법률가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허법 위반 판례 리서치를 통해서도 기술 보호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체감할 수 있었다.

물품대금청구권, 절도,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리서치는 일상과 밀접한 법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다. 물품대금청구권 판례를 통해서도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절도 판례에서는 유사 범죄 간의 구성요건 차이가 실제 판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리서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 질서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쿠팡 사태에 대한 뉴시스와 조선일보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법률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언론사마다 문제의 원인, 책임 주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법률 소비자인 시민들이 어떤 정보 환경 속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꼈다. 특히 사실 전달 중심의 보도와 평가·논평이 강조된 보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며 법률 이슈에서 언론의 역할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 전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은 결코 추상적인 학문이나 교과서 속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헌법 번역, 판례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이라는 각각의 활동은 모두 시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어 있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번 경험은 향후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가의 길을 고민하는 데 있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 호서대학교 김 ○ 리

2025년도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필수 봉사활동인 민선8기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를 하였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하기 위해 방청을 법원으로 갔다. 배우던 법들이 직접 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다. 특히 증인신문 전에 판사가 증인에게 선서하도록 하고 위증시의 처벌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당연한 절차이지만 실제로 증인의 선서를 보고 듣게 되니 훨씬 엄숙했다. 선서하는 증인의 책임감이 나에게는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개인의 도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법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이번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판결문 리서치에 관한 안내사항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전문 끝까지 읽고 난 후 정말 막막한 감정만 있었다. 이 활동 전에는 요약되어 있는 판례들만 봤어서 판

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인인지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쟁점정리였다. 판결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야 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다보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이 보이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들도 알게 되었다. 판결문을 정독하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전문용어 및 난해한 단어들을 찾아 쉽게 뜻을 정리하는 '용어 해설' 부분이 있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용어의 의미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그 용어가 어떤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지 고민하고 개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법률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를 마주했을 때였다.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읽었을 때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의 판단도 같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를 나열한 판결문을 읽을 때는 동일한 사실관계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크게 깨달았다. 막막했던 첫 시작과 달리, 활동을 마칠 때 쯤에는 사건의 쟁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 판례 공부할 하게 될 때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뿌듯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된 개념이나 법률 용어들은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민선8기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현재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활동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공약을 걸었는지 관심이 없어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약이 단순히 당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이 끝난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약 추진 현황까지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실천 가능한 공약들만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 하는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나니 뿌듯함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다. 쏟아부은 시간만큼 새롭게 얻은 지식과 실제 내가 느꼈던 점들은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우며 나 스스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경희대학교 김 ○ 리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2025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나에게 '법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법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법학을 공부하며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왔다면, 이번 활동은 그 지식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라는 세 가지 활동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였지만, 결국 '법과 제도에 대한 책임 있는 이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먼저 번역봉사 활동을 통해 나는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알제리, 짐바브웨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예를 들어 권력구조나 기본권 조항의 배열,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문의 표현 방식 등은 각 나라가 지니는 정치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같은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과 강조점은 문화·역사적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이 과정에서 나는

법률 용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꼈고, 동시에 법이 특정 사회의 가치와 현실을 반영하는 산물임을 실감했다. 헌법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각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의 실제 작동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경험이었다. 내가 맡았던 사건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두62492 판결이다. 판결문 검색, 재판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검색, 사실관계 정리, 쟁점 도출, 판결요지 및 판결전문 검토, 관련 기사 조사, 과거 판결기록 탐색, 용어 해설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순히 판결의 결론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어떤 논리를 구성했는지를 따라가 보는 작업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법원이 근로자 보호라는 가치와 사용자에의 인사·경영 재량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기대권' 개념이 자칫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경우 정년제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판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 판결을 통해 법이 감정이나 동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가치 판단의 산물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은 법과 정치,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내가 조사한 대상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이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정책과 공약의 구체적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관련 기사와 자료를 찾아 공약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의 이행률을 검토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시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정치는 종종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호감·비호감의 문제로 소비되기 쉽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는 정치와 행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을 기르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나의 시민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서로 다른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나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법과 제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헌법 번역을 통해 법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했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의 논리와 구조를 체감했으며,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법이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살아 있는 규범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나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준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자 한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법을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선물해주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와 호흡하는 법학도를 지향하며 성장해 나가고 싶다.

○ 영남대학교 김 ○ 수

법률소비자연맹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2024년부터 시작으로 2025년 가을학기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법조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시다.

처음 시작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으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판을 직접 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 그리고 제시되는 증거들을 비교하며 실제적 사실을 파악하여 뉴스에서나 보던 억울한 사안을 직접 눈 앞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가 항상 정당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며,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 역시 엄격한 검증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서도 입법부의 감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여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입법부의 어떠한 기준이 행정부에 적용되어 필요로 하는지 미약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여러 법률 봉사활동은 단순히 형식적 내용이 아닌 법률을 통한 사회의 구현목적과 방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책은 전반적인 틀을 잡지만, 법은 그 틀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규율하기에 법의 외적인 특성만 파악하는 다른 봉사활동과 특히 구별되었습니다.

짧게 활동을 하여 매우 아쉬웠지만, 봉사 활동을 통해 짧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를 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김 ○ 준

처음에는 단순히 이력서에 작성할만한 법률관련 봉사가 부족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판결문을 찾아보고 공약을 조사하며 외국의 헌법, 역사까지 찾아보다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발전했다. 학교생활을 할 당시에는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위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가 운영하는 거시적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으나, 판결문 제공신청을 하고 2심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먼저 완료한 것은 필수활동이었던 공약이행을 조사였다.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서울특별시로서 마블 농가뿐만 아니라 알고 있던 의성군, 독도 옆의 울릉도도만 알고 있던 울릉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낙후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주민 수도 예상보다 더 많았다. 또한 리서치 과정에서 여러 공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행정부처 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지역 신문에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 국민들은 들어볼 수도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후에는 판결문을 기다리며 번역 봉사를 진행했다. 원래 일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일본어 번역을 신청했으나, 매뉴얼을 받은 후 내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 특정 국가들의 헌법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호주 헌법을 배정받자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본인이 원하는 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법을 번역한다는 봉사활동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생각에 이르지 호주 헌법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 더 뜻깊었다. 활동을 진행하며 호주가 현재에도 영국 연방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그렇기에 영국 헌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호주는 그 외에도 캐나다의 헌법과 정말 비슷했는데, 두 국가 모두 영연방에 속해 영국 국왕을 군주로 모시는 입헌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부분에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입헌군주제 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법률과 무관한 국왕의 명령이나, 국왕의 직속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헌법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딱 들어맞는 우리나라 법령의 예시가 없어 해석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진행한 베네수엘라 헌법 또한 이와는 다른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남미권 국가라 영어로 헌법이 작성되어 있으면서도 영국이나 미국과 영어 철자가 달라 하나하나 입으로 소리내어 가며 무슨 단어인지 유추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각 국가의 헌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관련해

서 해당 국가의 역사도 찾아보며 각 국가의 발전과정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 등 비슷한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먼저 시작했으나, 가장 마지막에 완료할 수 있었다. 처음에 리서치를 신청하며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기에 1월 둘째주~셋째주 즈음 판결문을 찾아보고 법원에 판결문 제공신청을 넣었다. 그러나 첫 사건의 판결문은 2월 중순에 왔으며, 두 번째 사건의 판결문은 끝까지 오지 않아 법률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판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의 무료 플랜 동안 해당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었다.

첫 사건인 핵프로그램 추정관련 사건은 관심 분야였기에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사건인 검찰수사관의 뇌물공여 사건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노동자법 위반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건이기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에 첫 사건과 달리 증거자료가 매우 많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기에 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판결 요지를 납득할 수 있었다. 법조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판결문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해당 활동을 진행하며 판결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전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의 오류만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의 법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 주된 반박 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기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활동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 경북대학교 김 ○ 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 바누아투, 아르헨티나, 호주,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법률 문서를 단순히 언어적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각 국가의 역사와 정치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자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에는 그 사회가 지니온 역사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와 같이 식민지 경험과 정치적 격변을 겪은 국가의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와 같이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의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분배가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가 운영의 구조가 법률 조항 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치제도와 역사적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와 질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법 또한 어떠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제정되고 발전해 왔는지 탐구해 보고 싶다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점검 및 이행을 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서철모 구청장과 유성구의 정용래 구청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공약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시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에는 지역 교육, 복지, 환경, 교육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사업과 행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방행정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비교적 세부적인 정책들까지도 공약을 통해 계획되고 추진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단순한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 사회의 정책 방향과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공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에서 공약이행률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기관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투명한 행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과 정치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며 법이 형성되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조사 활동을 통해 정책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과 제도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책이 어떠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해 왔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과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인천대학교 김 ○ 진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평소 전공 공부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법률 현장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까지 참여하면서 법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현 시대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 쟁점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하던 이슈들을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각 기관과 공직자들이 어떠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지 살펴봄에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법 조문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비판받고 개선되는지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는 활동이었기에 처음 법정에 들어설 때는 긴장감이 컸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형사·민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판이 단순히 법률 지식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다. 판사의 질문 방식, 변호인의 변론 태도, 당사자의 진술 등을 보며 법률가에게 필요한 전문성뿐 아니라 책임감과 태도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전공 공부를 하며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활동에서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쉽게 풀어 쓰고, 중요한 쟁점과 판단 이유를 명확히 표시해 정리해야 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내용을 깊이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배웠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법을 '공부의 대상'이 아닌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규범'으로 바라보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시대적 쟁점을 읽는 시야를 넓혔고,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의 실제 모습을 체험했으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적 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앞

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 건국대학교 김 ○ 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번역 봉사활동, 재판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행정 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정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 번역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인 법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법정 환경을 경험하면서 법률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재판 절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법과 제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면서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사회 제도와 공공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남 ○ 석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을 단순히 딱딱하고 형식적인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한걸음 더 벗어나, 실제 사회와 실무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전공이 비법학과이고 학교 수업에서도 관련 수업이 마냥 많지는 않아서 평소에도 법을 잘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법이 사회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먼저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결과인 지자체장들이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했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었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다. 물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태어난 지역의 지자체장을 배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공약이행이나 정책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조인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 민주주의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놀라움을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자체장들의 공약들은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100여개 가 넘는 공약들을 전부 확인하면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공약들을 토대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씩 이행해나가고 또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공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약속이 꽤나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은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고, 민주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번 학기에도 헌법 번역 공약이행률 조사에 참여하였다. 각각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헌법이라는 규범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의 헌법 조문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의 배경, 역사, 헌법 수립 과정들을 알 수 있었고, 각 나라가 어떤 가치와 원칙을 중요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녹여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표현 방식이나 제도적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헌법이 단순히 법률 문서 내지는 규범이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와 정치적 경험, 그리고 시민의 권리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단어를 단순히 한국말이 아니라, 법률 용어로 번역하며 법률 문장의 엄밀함과 특이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역시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판결문을 찾아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논리와 기준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의 판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하는지 역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저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 때는 용어 숙지가 미숙했고, 재판의 과정들 역시 잘 몰랐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부 수업 중 형사소송법을 수강하기도 했고, 한 두 번의 경험이 축적되니 이제 제법 판결문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하다. 특히 판결문 속에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이유가 어떻게 구조적,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 보면서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 과정을 음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단순히 책상위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기를 얻게 되었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이라는 학부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분야를 접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다음 학기에도 여건이 된다면 다시 신청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국민대학교 노 ○ 영

1월 9일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법률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는 빈칸을 두 교재를 참고하여 채워 넣으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첫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다양한 대법원 판례 중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판례를 찾아, 그 쟁점, 사실관계, 전문, 각 법조인들의 이력 및 판례 관련 기사를 리서치해 문서로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어떠한 판례를 선정할지부터 막막했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률이 활용된 판례나, 최근 이슈가 된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선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했지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방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판례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최근 형법 시간에 학습한 조문이었기에 관심이 가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쟁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이 문제될 경우 판결 기준으로서 역할하는 판결이 되리라고 느꼈다.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다보니, 쟁점을 찾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판결문을 여러 번 살펴보고, 직접 사실관계를 대입해 정리하면서 쟁점을 차차 정리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용어 해설을 하면서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만한 법률용어를 찾아보고, 그 의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활용되는지, 반대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자세히 작성하다보니 단어 하나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렇게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총 4번 진행하게 되었다.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고, 법을 진로로 하다보니 판례에 많이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부당이득에 대한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자금이체시스템이 자주 사

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활용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하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실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인상 깊은 판결이었다. 이후에는 평균임금 정정 불응인등 처분 취소의 판결, 뇌물수수에 관한 판결, 사기 및 업무방해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수회 진행하다보니 점점 능숙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다. 하면 할수록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어 자기발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판결문을 보면서 쟁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판결이 있는 반면, 이처럼 비슷한 쟁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판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총 4번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겨울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8기 공약이행률평가 봉사활동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선거공보, 5대 공약 등이 자세히 나와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선거 공약을 보면서 그 중에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있었지만, 표를 받기 위한 공약처럼 보이는 것도 몇 가지 있었다. 이후에는 처음으로 번역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총 4번의 번역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베네수엘라, 아르메니아의 헌법을 번역하였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와 연계해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기관명이 한국과 달라서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용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권, 국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봉사활동이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제외 총 72시간의 봉사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들 중 가장 발전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봉사활동이었다. 다만, 더 많은 종류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3가지 봉사활동에 그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대학교 도 ○ 정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공약 이행률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면서 법과 민주주의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 수업이나 뉴스를 통해 법과 정치에 대해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서는 유희태 전라북도 완주군수와 최훈식 전라북도 장수군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평소에는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말로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행정 과정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해 막연한 인식이나 선입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 이행 현황을 직접 조사하거나 정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약 이행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작업은 시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나 현직 단체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며 작은 활동이지만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민사 사건인 2024다 308079 유류분반환청구, 2025다204730 손해배상청구의 소, 2025다209384·209391 저작권침해금지, 형사 사건인 2025도367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 사건

인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판결문이 매우 어렵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문서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니 사건의 사실관계,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정과 그 근거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차근차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법률 정보 접근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형사, 민사 재판의 특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 보면서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률은 때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해 나간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민사 사건 중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해당 사건은 평소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와 관련된 분쟁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디자인이나 브랜드명이 변경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브랜드 리뉴얼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그 이면에 법적 분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일상에서 접하던 브랜드의 변화가 단순한 마케팅이나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고, 판결문을 통해 그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과정에서 소송대리인과 판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조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단순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만 분석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회차의 리서치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지, 어떤 법무법인이 주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다루는지와 같은 특징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나 판결의 논리 전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 서비스와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면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재판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법률 정보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료 조사 활동을 넘어 법과 민주주의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감시와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만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다.

○ 연세대학교 모 ○ 윤

2025년 겨울학기 동안 나는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총 4개국의 헌법 번역 봉사를 수행했다. 또한 형사재판 모니터링과,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을 조사 봉사도 진행했다. 총 33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이전 학기부터 꾸준히 참여해온 경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여러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 체계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영어 용어들을 익힐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며 이해하다 보니 법률과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형사재판 모니터링 봉사활동에서는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청했던 경험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들을 관찰하며 재판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판사와 변호사, 검사, 피고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 봉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장 전성수와 성동구장 정원오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나는 기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했다. 190개의 공약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내가 맡은 활동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법과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양한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려대학교 문 ○ 준

최근 며칠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제87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번역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스웨덴 헌법을 번역한 것에 이어 참여한 두 번째 헌법 번역이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치 구조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문장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하려 했으나, 우즈베키스탄만의 독특한 용어들 앞에서 다시금 벽을 느꼈다. 'Oliy Majlis'(최고회의)나 'Khokim'(지방 행정 수장) 같은 명칭들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한국의 어떤 직제와 매칭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하며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행정부를 일컫는 'Cabinet of Ministers'를 단순한 내각이 아닌 '국무회의'로 번역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혼합된 우즈베키스탄 정치체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내가 선택한 단어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번역을 이어갔다.

국가 소개글은 초안을 먼저 간략하게 작성한 다음,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조금씩 덧붙여가며 마지막에 최종본을 완성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글의 초안을 간략하게나마 작성한 것이 번역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 공화국인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지역이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니라 주권 자치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과 조약을 맺고, 심지어 주민 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관련 조항들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컸다. 배경지식을 통해 국가의 역사와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번역 봉사의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임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이번 번역 봉사를 할 때는 직접 작업했던 스웨덴 헌법 번역본과 담당자님께 샘플로 제공받았던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본을 레퍼런스로 삼았다. 특히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본에 있는 격식있는 문체와 법률 용어의 활용법을 참고하여,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엄중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샘플들을 대조하며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번역한 이 자료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와 법체계를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매우 뿌듯할 것 같다. 영어 원문 몇 페이지를 번역하는 데도 이토록 많은 시간과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며 전문 번역의 무

게감을 다시금 실감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찾는 수준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맥락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번역 봉사에서는 이번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매끄럽고 완성도 높은 번역본을 만들어내고 싶다.

또한 이번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도 대단히 뜻깊었다. 나는 경기도 의왕시 김성제 시장과 경기도 오산시 이권재 시장에 대한 공약 이행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민선8기 공약 조사 봉사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행정의 실제 작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공약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언론보도와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공약이 수립되고 계획되며 이행된다는 것도 신기했다. 또한 교통, 도시재생, 생활 SOC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시정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다 보니 '추진 중'과 '완료'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샘플 자료와 점수표가 없었던 더운 여름을 갓 갓다. 이처럼 공약의 이행률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나니 공약이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현실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료를 찾고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객관성의 중요성도 배웠다. 비록 오산시나 의왕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의 체감도를 고민해 보는 계기도 되었고, 정책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단순 조사 활동을 넘어 시민으로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지역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문 ○ 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이번 겨울 봉사활동은 작년 이어 두 번째 참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올해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판결문 리서치, 번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법률과 공공 정책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통해 지역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순병복 울진군수와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두 차례의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진행한 대법원 2023도11044 사건(업무상 배임 등)은 단순히 형법 조문을 해석하는 문제를 넘어 실제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비교적 친숙한 업종에서 발생한 분쟁이었고, 동업 관계에서의 신뢰가 깨지면서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하나의 서비스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자 영업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2심, 3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렸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 2심은 형식적인 등록 여부를 보다 중시한 반면, 대법원은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관점 차이를 비교해 보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면서, 판례 분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표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권리 귀속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2024도8174 사건으로, 상표법 위반 여부와 상표의 유사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상표의 철자나 발음을 비교하는 문제를 넘어서 결합상표에서 요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수요자의 인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히 인상 깊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립스틱 제품명에 포함된 하나의 영어 단어가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이라는 상표법의 본질적인 쟁점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알제리 헌법 36~40페이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도 수행하였다. 헌법 조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각 조문의 의미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다른 국가의 헌법 내용을 접하면서 각국이 기본권과 국가 운영 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겨울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공약이행률 조사와 번역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 그리고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고민해 보고 싶다. 이번 겨울 봉사활동은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며,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문 ○ 원

이번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평소 학교에서는 조문이나 판례의 결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현실 속 사건과 정책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민선 8기 공약이행률 조사였다. 처음에는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각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도자료나 지자체 발표 자료, 정책 보고서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내용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무른 사례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많은 공약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들이 이후 행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흥미로웠고, 단순히 수치로만 보던 공약이행률이 라는 지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였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인상 깊었다. 평소에는 수업에서 판례의 핵심 법리나 결론 위주로 접하다 보니, 하나의 사건에 대해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 전체를 읽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번 활동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수 있었다. 판결이 상급심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논리가 유지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판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형사 재판의 실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법리적 한계로 인해 명백한 피해가 있음에도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이 오히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진행한 대법원 2024다300228 판결문을 읽으면서 강의실에서 배웠던 물권법의 개념들이 실제 분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에서 배웠던 분묘 기지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자

주점유 추정과 같은 법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합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따라가며 법리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앞으로 판례를 읽을 때 조금 더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알바니아,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각 국가의 정치적·법적 구조를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배경이나 정치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와 제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법을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 나가고 싶다.

○ 명지대학교 박 ○ 경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써 법체계, 지방자치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는지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헌법을 번역하고, 정치제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국가에 대해 면밀히 알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였던 활동은 헌법 번역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거주지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예멘의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 5페이지를 번역하였고,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적 토대, 국가방위,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며 예멘이 어떻게 운영 중인 국가인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가 발달해 있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와 달리 이슬람 샤리아법에 대한 내용도 많이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고, 신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었던 짐바브웨의 헌법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번역하였습니다. 최고 책임자 임명·사임·권한 행사·임금, 헌법기관의 의결정족수, 공공기관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번역하였습니다. 막연히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치 상황과 사법체계에 대해 면밀히 알아가며, 짐바브웨의 역사와 현재의 세부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고,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과 정치제도를 확립한 국가이기에 더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OECD 선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호주의 헌법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번역하였습니다. 의회의 법률 제정 범위, 관할권 정의 권한, 세금 및 무역 등에 관한 내용을 번역하며 호주의 자연환경 및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호주가 어떤 체제의 국가인지, 세금 및 의회의 권한 등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호주는 국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떤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인지에 대해선 몰랐던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학기 필수활동인 민선8기 공약이행을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김하수 군수와 경상북도 청송군 윤경희 군수의 공약 이행상황을 조사하며, 생각보다 많은 공약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도군 김하수 군수가 상황에 맞

게 공약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약과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약속한 공약들의 대다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전국적,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21 단독 재판부, 형사 9 단독 재판부, 형사 1 단독 재판부를 방청하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재판의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민사 재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민사 재판 하면 항상 원고와 피고가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이 연상되었지만 실제로 민사 재판을 직접 보니,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주고 받을 때에도 경어를 사용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고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답답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재판이란, 자신을 억누르거나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닌, 법을 신뢰하여 “법에 의해 나의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점이 보여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재판부에서 한번에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 판사님이 재판 내용 및 재판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것이 보여 아쉬웠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생소한 국가들의 법제와 정치체제에 대해 면밀히 알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법제가 국민을 위해 실현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추상적으로만 배웠던 법의 실현을 체감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학기 봉사에는 한층 더 성장한 태도로 참여하며, 이번 학기에 하지 못했던 다른 활동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쌓고자 합니다.

○ 강원대학교 박 ○ 민

2025년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법정치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의정 모니터링, 헌법 번역,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법과 정치라는 분야를 막연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왔던 나에게 이번 활동은 그 영역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먼저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두 행정구역의 장을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정치인들이 제시했던 공약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과, 예상과 달리 상당수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실제로 많은 공약들이 대개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다소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일부 공약은 보며주기식으로 추진되거나, 수요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세금이 투입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앞으로 선거 공약을 단순히 나열된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헌법 번역 봉사 또한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아르메니아 헌법을 번역하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해당 국가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이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종교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전통과 오랜 지배의 역사가 헌법의 내용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번역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편 호주 헌법을 번역하면서는 영국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가 헌법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다만 번역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다. 한국의 제도와는 다른 정치·헌정 구조를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로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주의 제도는 그러한 기준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세계화 시대라고 하더

라도 각 국가가 가진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기반은 매우 다양하며,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 중에서도 내가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었다. 나는 법과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법원이라는 공간은 다소 높은 장벽처럼 느껴져 쉽게 방문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재판관을 직접 방청하고 재판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실제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사법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혹은 사법이라는 이름 아래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개운했다.

재판을 관찰하면서 판사들의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떤 판사는 다소 엄격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법을 수호하며 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대체로 많은 판사들이 부드럽고 인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함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판사에게는 인간적인 이해와 함께 강한 책임감과 권위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활동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과 정치가 이전보다 훨씬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었다. 특히 법이 추상적이지만 한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법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더욱 커졌다. 앞으로도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법정치봉사단으로 활동한 시간들은 매우 보람찼으며, 소비자로서 사법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준 법률소비자연맹의 담당자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박 ○ 언

이번 학기 동안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점검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공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다. 세 활동은 각각 언론, 사법, 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공통적으로 '공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결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먼저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동일한 이슈가 어떻게 다른 의미로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기사와 사실을 비교해 보면서, 언론사마다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의 주체를 밝히는 방식,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신문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신문은 특정 인물이나 정부의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표현의 강도, 단어 선택, 통계 자료 활용 여부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논조가 달라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 보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일정한 해석이 개입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기사 내용을 비교적 그대로 받아 들였다면, 이제는 '왜 이 신문은 이 지점을 강조했는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과 프레임의 작동 방식이 추상적인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사 문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긴장감이 컸고, 특히 민사 재판의 경우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방청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와 각 참여자의 역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점은 법이 매우 체계적인 절차 속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서류 한 장이나 진술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힘과 무게

를 실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점검 활동은 정책의 '이행'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었다. 공약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계획은 구체적이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검토를 필요로 했다. 단순히 공약 이행을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만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다. 이 활동을 통해 공약은 단순한 선언적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현실 속에서 조정되고 변화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민이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행정의 책임성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꾸준히 확인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생각해볼게 되었다.

세 가지 활동을 종합해보면 공공 영역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언론은 보도의 방식에 따라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법원은 절차를 통해 판단을 만들어가며, 행정은 계획과 집행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실현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다양한 선택과 판단이 개입되며, 그 결과는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기사 한 편을 읽을 때나 정책 발표를 접할 때, 혹은 재판 결과를 볼 때도 그 이면의 맥락과 과정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험은 공적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에 가까웠던 것 같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를 접할 때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거와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싶다.

○ 덕성여자대학교 박 ○ 은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는 경제신문 사설 분석,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이행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봉사 참여인데, 매 활동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활동이더라도 시기마다 이슈가 달라지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여론 또한 달라지다 보니 그때그때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설 분석의 경우, 약 150개의 기사를 읽으면서 최근 다뤄지고 있는 주요 주제나 언론사들의 입장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에도 언론모니터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 문단에서 작성한 것처럼 많은 양의 기사를 읽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언론모니터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그만큼 식견을 넓히기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활동을 수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사실기사 분석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다량의 글을 읽음으로써 글을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설은 길이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차 있기도 하고, 다른 몇몇은 문장은 장황하나 정작 그 속에 든 내용은 빈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설은 필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사설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글이 논리정연한지 그리고 객관적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독해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모니터링 중에서도 경제신문 사설 분석을 택하여 총 9곳(매일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의 경제신문 기사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부쩍 경제 관련 기사와 과학, 사회/정치 분야 기사가 다수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피지컬 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걱정스런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아홉 군데의 언론사가 모두 동일했으며, 이외 한중 정상 회담이나 원전, 희토류 통제 및 반도체 산단 이전 등의 이

슈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물론 사실 기사의 어조는 언론사마다 각각 달랐지만, 핵심 주장이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 비교적 명확함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일치된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역할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가시화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아홉 곳의 언론사가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뜻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의 필수 활동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이행률 조사였습니다. 제시된 공약에 비추어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석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임기가 올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약이 완료 예정 혹은 완료로 판단되었으나, 몇몇 공약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혹은 실행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행을 조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호하다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해당 공약이 어디서,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판단하기 난처합니다. 이행 보고서에는 이행 완료라고 적혀있더라도 관련 기사는 전무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조사와 대조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사건 없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언론모니터링과 민선8기 이행을 조사를 진행하며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핵심 주장 찾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및 의견 제시 방식 분석을 통하여 객관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일지라도 무사히 활동을 끝낼 때마다 뿌듯함과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많은 대학생 청년분들이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러한 보람을 직접 체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박 ○ 희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석수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김기재의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공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매뉴얼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목록을 확인하고, 공약분석 시트를 통해 공약별 추진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정책 자료와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 등을 참고하여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진행 단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또한 공약이 완료된 경우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이행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지방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문의 판결요지와 판결전문을 분석한 후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판결문 속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와 법리를 정리하면서 판례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사건은 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 반환청구의 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원자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후원계약의 성격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판결문 리서

치 활동을 진행하면서는 법률 용어와 판결문의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보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사건은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등 청구의 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시간 기준에 따른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법리를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사실이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판례가 어떤 논리 구조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사건은 대법원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 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사사건과는 다른 법리와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법원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 재확인의 소 사건과 대법원 2024다250873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중심이 된 사건이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과 정책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지방 행정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도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논리와 판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이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법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며 사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홍익대학교 박 ○ 윤

2023년 여름학기,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문을 두드렸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서툴렀던 기억을 뒤로하고, 어느덧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은 쌓아가고 있었지만, 실제 시민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감시되고 이행되는지 체험해보고 싶어 시작했던 활동이 벌써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활동할 당시에는 매뉴얼을 몇 번이나 정독해도 갈피를 잡지 못해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겨울학기 활동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능숙하고 깊이 있는 태도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법률 소비자 권의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은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헌법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봉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를 치환하는 작업을 넘어, 각 국가의 근간이 되는 통치 구조와 기본권의 체계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 네 국가의 헌법 전문과 조항을 번역하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각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명문화되는지 깊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 특유의 엄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전을 뒤적이고 관련 법령을 대조하는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지만, 하루에 한두 조문씩 정성껏 번역해 나가며 완성된 결과물을 보았을 때 느낀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난도가 높은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도로서 세계의 법체계를 직접 분석해 본 이 경험은 제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수행한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행정 감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선거 당시의 약속들이 실제 예산 배정과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엄격한 사후 평가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약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힌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의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의 리걸 마인드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판결문을 여러 번 정독해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며, 복잡한 법리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한 경험은 법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판결문을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속의 논리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향후 제 진로를 결정하고 일상생활 속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저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활동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고, 막막함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낸 제 자신에게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공약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깊이 알게 되었고, 저의 작은 정성이 그러한 공익적 활동에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합니다. 처음의 서툰을 극복하고 고군분투하며 얻어낸 이 소중한 성과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법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활동에도 참여하여 더욱 능숙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박 ○ 호

이번 2025년 동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번역 봉사와 공약 이행을 조사를 수행하면서, 법률 자료와 정책 정보가 실제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분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다.

먼저 번역 봉사활동은 단순한 문장 번역을 넘어 법적 개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헌법 및 법제 관련 문서를 번역하면서 용어 하나에도 제도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문서는 일반 텍스트와 달리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하였고, 법률 용어를 신중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또한 해외 법제를 접하면서 각 국가의 법체계가 사회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자료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 집행과 책임성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약의 이행 여

부를 수치와 근거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정치적 주장과 실질적 성과를 구분하는 분석적 시각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는 시민으로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 경험이었다.

이번 동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공통으로 느낀 점은 법과 정책이 기록과 자료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번역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의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고,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공공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활동 과정에서 낯선 법률 용어를 해석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점차 분석 능력이 향상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법률 자료를 다루거나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2025년 동계학기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 봉사를 넘어 법률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며, 사회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박 ○ 규

올해 겨울 갑작스레 법조계에 관심이 생겨 관련활동을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하여 신청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어느덧 막을 내리는 단계에 왔다. 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던 내게 정말로 유익했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번 봉사에서 판결문리서치와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신청하여 하였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판례를 자신이 조사하기를 희망하는 판례들을 신청하여 컨펌을 받은 후 진행되는 식이었다. 컨펌받은 판례의 1~3심의 사실관계, 쟁점,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하나의 보고서에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이 정말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판례들을 읽고 분석하면서 평상시에는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고 뜻을 찾아보며 내게 익숙한 말로 바꾸어 보면서 생소하고 어렵던 법률용어들이 친숙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할 때에는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낯선 법률용어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몇 번의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판례를 읽고 분석하는데 익숙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판례를 분석하며 느낀 것은 판례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판례에는 어려운 법률용어들,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많았다. 조금 더 쉬운 단어, 조금 더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판례를 더 쉽게 접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결과물이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바라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도입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더 쉽고 편하게 법의 도움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한 활동은 이번 분기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 이행률 조사이다. 사전에 정해주신 지자체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약간의 편견같은 것이 있었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기는 할까, 선거기간에만 실제로 이행할 것처럼 말만 하고 당선 이후로는 신경도 안 쓰지 않을까?'와 같은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이 활동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놀란 점은 후보별로 적게는 수십개 많으면 백개가 넘는 공약들이 존재했는데 거의 모든 공약을 이행했거나 이행 준비 단계였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정말 착실히 이행되고 있었다. 도로확장, 도시공원조성과 같은 인프라 확장 뿐 아니라 공공급식 지원, 여성안심지구 건설 등과 같은 복지시설 확장 모두 이행된 상태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공약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공약 이행률이 낮아서가 아닌 선거 이후 공약이행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지표로 공약이행률을 확인하고 나니 투

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각 후보들이 당선된 후 해당 후보들의 공약 이행률은 약90%이상이었다. 다시 말해 선거때의 공약들은 거의 이행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만큼 국민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장려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게 된 활동이었다. 각 활동들을 하며 법과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된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중앙대학교 박 ○ 린

이번 학기 처음으로 발을 들인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정치,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처음이라 서툴기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은 강의실 책상 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수행했던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 점검 활동은 나에게 '주권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워준 신선한 경험'이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리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명제는 사회과학도인 나에게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할 기회는 전무했다. 내가 맡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표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방대한 양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난다. 수백 개의 공약마다 관련 보도자료를 일일이 찾아 대조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고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숫자로 표시된 이행을 이면에서, 이 공약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점검표를 채워나갔다. 선거 기간에만 반짝 관심을 가졌던 공약들이 당선 이후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는지, 혹은 왜 지체되는지를 추적하며 정치가 우리 곁에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있는지 실감했다. 특히 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동네의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며, 감시자로서의 습관이 일상에 스며들었음을 깨달았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노동이라는 이슈를 실제 사건에 투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3심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문을 내 힘으로 깊이 읽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학부 수업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개념들이 실제 노사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법리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무척 흥미로웠다. 초반에는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판사들의 논리 전개에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판결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법률 용어 검색을 통해 헛갈리는 단어와 개념들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으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원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추상적인 지식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공부해볼 수 있어서 법학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내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전에 졸업 논문으로 언론 프레임에 다뤄본 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법개혁 이슈를 분석하면서도 그때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보도 기조가 극명히 갈리는 두 매체를 비교하는 작업은 마치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 진지전을 보는 듯했다. 같은 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한쪽은 사법 민주화의 시작으로, 다른 한쪽은 사법 장악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어떤 전문가를 인터뷰이로 선정하는지, 기사 상단에 배치된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극적인 용어들이 어떻게 독자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을 넘어, 언론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을 해체해보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뉴스를 접할 때 제목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는 비판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학기 세 가지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건전한 의심이다. 지자체장의 공약을 의심해보고, 확정된 판결문의 논리를 의심해보고, 언론이 던져주는 프레임을 의심해보는 과정은 나를 더 성장시켰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감시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낀다.

세 가지 봉사활동은 각각 다른 가르침을 주었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정치가 약속을 하고(공약 점검), 법이 갈등을 조정하며(사법 감시), 언론이 이 모든 과정을 해석하여 대중에게 전달(언론 모니터링)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번 활동들을 통해 나는 사회 현상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다.

또한, 내가 수행한 이 작고 세밀한 분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확신은 활동 내내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특히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강의실에서 텍스트로만 접했던 담론 분석이나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들을 실제 현실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해 보며, 이론이 어떻게 사회적 실재로 작동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학문적 가설을 현실의 문맥에서 검증해 보는 과정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층 넓혀주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나는 이 경험이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정보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짧은 한 학기의 활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얻은 감시자의 시각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더 맑게 만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음 학기에도 이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

○ 한양대학교 박 ○ 우

이번 활동을 통해 판결문 리서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그리고 법정모니터링 봉사에 참여하면서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법률과 정책을 주로 이론이나 자료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실제 사례와 제도 운영 과정을 확인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법과 행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실제 판결문을 읽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결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근거로 논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과 논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법률 문서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계획, 예산 편성, 사업 추진 등의 구체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서 각 공약의 추진 상황과 이행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다양한 행정적·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할과 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 활동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법

정을 직접 방청하면서 사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재판을 방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장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러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구형 의견을 밝히는 과정,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변론을 하는 과정, 그리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판이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직원들이 출석 확인, 기록 정리, 절차 진행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판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률과 제도는 단순히 교과서나 문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자료를 조사하고 재판 절차를 직접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법과 제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을 넓혀 나가고,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법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싶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백 ○ 영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를 넘어, 평소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이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도임을 체감할 수 있었고, 법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한층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공약이행을 조사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조사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지역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공약도 적지 않았지만, 일부 공약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분량이 길고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를 점차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모두 다루어 보면서 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은 흔히 배우는 법 이론처럼 단순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 속에서 법원은 서로 충돌하는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과 법리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건이라도 1심, 2심, 3심을 거치며 판결이 달라지는 사례를 보며 우리

나라의 3심제가 판결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판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와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이 단순한 규범이나 이론을 넘어 실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작동하는 제도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공약이행률 조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과 사법 제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감시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 동아대학교 서 ○ 주

법률소비자연맹의 일원으로서 수행한 예멘, 안도라, 호주, 짐바브웨 4개국의 법령 번역과 민선 8기 공약자치단체장 공약 조사 활동은 법학을 지망하는 저에게 '법이 사회를 규정하는 방식'과 '정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성찰하게 한 소중한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4개국의 헌법과 주요 법령을 번역하며 저는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이 투영된 법률 문장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주 헌법 제24조와 제44조를 번역하며 연방제 하에서의 의회 구성 원리와 의원 실격 사유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확인했고, 이는 영미법계의 법적 안정성 유지 방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안도라의 독특한 공동 대공 체제나 예멘과 짐바브웨의 법령 속에서 발견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장치들은, 국가의 규모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법이 어떠한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법학적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해석 능력은 향후 로스쿨에서 방대한 판례와 국제법을 다룰 때 필요한 기초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시각은 민선 8기 공약 조사 활동을 통해 국내 지방자치의 실천적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분석하며, 행정 수장의 정책 의지가 '법적 근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라는 거대 담론이 기업 유치와 금융도시 지정이라는 구체적 공약의 법적 토대가 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법적 파급력을 체득했습니다. 또한 충남 김태흠 지사의 농업 산업화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 공약을 조사하며 정책 이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편성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는 '기록된 법(Law in books)'이 실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있는 법(Law in action)'으로 구현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전문적인 법학 지식에 앞서, 법률이 소외된 곳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조인의 기본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 정신을 탐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점검하며 다진 이 경험들은, 제가 향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지역 사회의 법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중심적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법의 본질을 탐구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이 시간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송 ○ 민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헌법의 일부 조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쟁점과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과 정책, 그리고 사법 판단이 사회 속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법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 법률 문체에 맞게 옮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헌법 조문은 비교적 간결한 문장 안에 국가기관의 권한과 절차, 제도적 원칙이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한 직역만으로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문의 제도적 의미와 문장 구조를 함께 고려하며 번역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규율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평가 활동은 정책과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점검되고 평가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군정자료 등을 통해 각 공약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읽고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평소에는 판례 요약이나 해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활동에서는 판결문 전문을 읽으며 법원이 어떤 논리적 과정과 법리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이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일정한 논증 구조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적 문서와 정책 자료를 직접 읽고 분석하는 경험을 통해 법과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헌법 번역, 공약이행 평가, 판결문 분석이라는 서로 다른 활동을 수행하면서 법과 정책, 사법 판단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법이 단순한 규범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분쟁 해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과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욱 분명하게 해 주었으며, 향후 법을 공부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송 ○ 은

가을학기 봉사 후,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겨울학기 봉사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2025 겨울학기의 경우,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가 필수 활동이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황성군 김명기 의원과 경기도 가평군 서태원 의원을 배정 받아,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평소 실제 거주지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에 관해서 큰 관심을 지니지 않았고 하였고, 민선 8기 기간 중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터라 연연중에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률을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황성군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약(자동차 관련 사업)의 이행을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공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애초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지적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정받아 조사한 강원도 황성군 및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민선 8기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지 못한 것 같아, 이번 학기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분석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겨울학기에는 민사(소해배상), 형사(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인지청구

및부양료청구), 행정(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리서치 대상으로 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검토한 판결문의 경우, 대부분 기존 대법원의 논지에 어긋나거나 일반적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없었기에 '만일 내가 법관이었다면, 동일한 판결을 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26 봄학기 봉사활동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정의로운 사법 실현을 위한 활동일뿐만 아니라, 봉사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입니다.

○ 성균관대학교 신 ○ 원

이번 학기 동안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 법학에 관심이 있었고, 법조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본 경험은 많지 않았기에 이번 활동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을 1심 판결부터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료 조사를 넘어선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1심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쟁점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까지 이어서 검토하면서,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과 논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에 적용될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무게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리적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사고의 깊이를 더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단순히 분쟁의 결론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적 가치 판단과 사회적 기준을 담아내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는 법 조항의 해석과 기존 판례의 축적, 그리고 재판부의 치밀한 논증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법률 용어와 긴 문장 구조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읽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점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편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 근거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판결문이 일반 국민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법률 전문가를 전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표현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규범인 만큼, 판결문의 내용 또한 보다 쉽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쟁점과 판단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접근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넘어, 법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은 각 단계마다 다른 관점과 논증을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저의 시각 또한 한층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단순한 조문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경험은 저에게 법적 사고의 기초를 다져 준 소중한 계기였으며, 동시에 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공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고민해 보게 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록 속에서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사고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글의 구조와 논증 방식을 분석하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적 분쟁 이면에는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

회적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보다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신 ○ 원

이번 봉사활동은 학창시절에 쉬이 해보았던 봉사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기본 취지와 윤리, 자료 작성 시의 유의점을 먼저 점검했고, 이후 타국의 헌법 번역 활동,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역량을 쌓아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꾸준히 시간을 들인 활동은 각국 헌법 번역이었다. 바누아투, 알바니아, 앙골라, 안도라 헌법 일부를 번역하면서,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좋은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감했다. 헌법 문장은 단어 하나가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바꾸기도 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국가마다 제도적 맥락이 달라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번역 과정에서는 먼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조항의 취지를 놓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되, 법적 의미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선택했다. 특히 의무와 재량을 가르는 표현, 예외조항의 범위, 권리 제한 사유를 명확히 읽어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중요한 훈련이었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을 조사 활동은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공약 목록을 단순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거 자료의 출처, 사업 범위, 추진 일정, 예산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야 했다. 같은 문장이라도 실적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행이라고 볼 것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능력뿐 아니라, 판단 기준을 세우고 기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활동은 봉사활동 후반부에 수행한 대법원 2023다311184 판결을 리서치한 활동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법관들이 어떠한 해석을 하여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까지 도출해보는 일련의 활동이 처음에는 까다롭게 느껴졌지만 금방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구제 문턱을 낮추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에서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판결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경을 쓴 쟁점정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정리하며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논리적인 다툼을 전개해 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 처리와 논리적인 전개가 법조인으로서 곧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번역이든 조사든 리서치든 결국 누군가의 이해를 돕고,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현재 법학석사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되었다. 텍스트 속에 있는 뉘앙스와 쟁점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앞으로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2026년 봄, 여름, 가을 봉사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첫 봉사활동이라 미숙했던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계속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빠른 피드백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한양대학교 안 ○ 은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이 수행했던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이번까지 총 4차례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봉사할

등을 수행하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 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필수활동인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늦게 신청했음에도 양해해주신 관계자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공약이행률조사는 그 활동을 진행하며 느끼게 된 점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 지역을 두 곳 맡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늦게 안내받아 시간이 넉넉지 않았는데, 이전에 비해 공약의 내용이 확연히 많아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자체들은 비교적 공약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많이 안내되어 있어 그 내용과 수행 내용을 비교하여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수행되고 있지 않은 공약과 그 내용이 모호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이행 사항 파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공약 사항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모호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공약을 내세울 때는 반드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치적인 내용을 규정하거나 적어도 명확히 그 정도를 산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내뱉는 공약은 피상적인 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민이 그 공약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진행 여부는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 시행은 국민에게 더 접근성 높은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찾기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보다 지자체의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면서는, 비판적인 사고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이전에 봉사활동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약 이행을 정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공약 이행 사항이라고 파악한 부분, 공약이 이행되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부분 등 그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과 그 이행이 모호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앞서 이야기 한 문제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자료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 세 번의 리서치를 통해 정말 다양한 소재의 판결문을 접해 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리서치를 하면서 아직도 접해보지 못한 소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리서치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동안은 형법, 민법 등 국내에서 법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면, 국제재판관할권 판결문에서는 국제적으로 법체계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 재판의 관할이 결정되는 원리 등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판결문 리서치만을 수행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결문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종류도 많으니 지속적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법리와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했으나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여러 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신청하였으나 회신 이후 수행이 어려워 역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다른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있어 봉사를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다양한 봉사를 경험하기 위해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봉사에서도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양 ○ 현

이번 25-4 봉사활동에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번역봉사,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법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이론과 제도를 접해 왔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배워 온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정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평소 법정이 단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적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그곳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건을 다루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법조인의 직무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따뜻함을 함께 요구하는 직업임을 느꼈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어 설명하거나 피고인의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법조인이라는 직업과 법정이라는 공간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는 “가정폭력행위 무죄 확정과 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죄의 성립 여부”를 주제로 판례를 분석하였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후, 원인이 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서 보호명령의 효력과 불이행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결에서는 보호명령이 내려질 당시 피고인이 아직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보호명령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정교한 법리적 논증이 치밀하게 결합된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평소에도 판례를 접해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쟁점을 정리하고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세밀한 해석과 논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판례를 분석하며 법학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학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판결문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봉사 활동 역시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다른 국가의 헌법 조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헌법 체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 조항을 번역하며 우리나라 헌법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규정과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졌다. 같은 권리를 규정하더라도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과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민주주의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다양한 언론 보도와 지자체의 정책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지방자치의 성과 역시 충분히 평가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지방행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공약 이행을 꾸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법정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판단되고 있었고, 판결문 속에서는 치열한 논증을 통해 법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다 책임감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동국대학교 양 ○ 수

저번 가을학기에 이어서 이번 겨울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헌법번역,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이렇게 4가지를 하였다.

먼저 헌법번역과 판결문 리서치는 저번 학기에도 해 본 것이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 헌법 번역은 단순히 번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까지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나라에 대해 알고 난 후 번역을 시작하면 알기 전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번역하기 전에 먼저 나라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한 번 번역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는 법률 공부에 영어 공부까지 되었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는 1심, 2심, 3심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시작하기 전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같으므로 하나의 판결을 정리하면서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순간 그 이후의 조사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쟁점 또한 반복되므로 쟁점 정리도 한 번 하면 그다음 정리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과거 사건기록이나 판사들의 이력을 정리하는 점이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 과정도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과정 중 하나로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였다. 저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2가지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약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다. 하지만 과거에 작성된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보니 없어진 공약도 꽤 있고 이름이 변경된 공약도 꽤 있었다. 또한 찾아도 아예 나오지 않는 것도 있었다. 나오지 않는 공약들은 ‘찾을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를 조사해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공약이 분야별로 촘촘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국정 감사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모니터링의 하나로 현재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가장 잘 부합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공약 이행을 조사하니 직접 갔다 온 것 같은 친근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더 갖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언론 모니터링을 하였다. 그 중에서 경제 사설지 분석을 신청하였다. 사설이 각 신문사별로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이를 하나씩 조사하니 양도 많고 분야도 다양해서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분야별로 표를 만들고 겹치는 주제도 정리하는 등 보고서를 차례대로 쓰면서 정리가 되어갔다. 평소 경제 사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더욱이 이 부분을 신청하였는데 일주일 분량을 하니깐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현재 어떻게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볼게끔 하였다. 대부분의 이슈는 어떠한 법이나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2학기에 걸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니 법을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법률 문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학교 교과 시간에서는 할 수 없는 뜻깊은 시간의 소중한 활동이었다.

○ 서울대학교 오 ○ 택

경영학과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의 전공과 다양한 교양 수업을 들었지만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여론의 흐름 등 다양한 요소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론보다는 실제로 느끼고 법률적 소양을 기르고 싶었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 봉사단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동안 수행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달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했던 활동은 광주 북구·서구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5차 점검 활동입니다.

해당 봉사활동에서는 선거 때 공약이 실제 임기기간 동안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팩트체크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공약들의 진행 사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이행이 되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란,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로서 정책을 감시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했던 활동은 <대법원 2020다247190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해당 사건을 분석하면서 법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가 낯설어서 판결문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원 판결문의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 중간부터는 그 논리를 잘 따라가니 판결문 읽는 것이 점차 편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한 판결로 노동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택적 장래효라는 법리로 판결의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정 또한 고려하는 곳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 중 경제지 사실 분석입니다. 2026년 1월 2주차의 주요 이슈인 고환율, 반도체 산업경쟁력, 여야 대내외 정치 갈등을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지 사실들의 반응은 고환율과 저성장의 원인을 진단하며 정부의 관리 금융과 여야 내외 다툼을 비판하고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이 단순히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언론들이 설정한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후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 일반 오 ○ 경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1월부터 2월까지 총 30시간 동안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교과서나 강의에서 접하던 법률 개념이 실제 분쟁과 정책 평가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유류분 반환 청구, 혼인의 무효,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토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법원이 어떤 논리 구조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을 보며, 법적 판단이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한 정교한 논증의 결과임을 실감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은 결과만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고 과정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 번역 역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이라는 기본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 하나, 용어 하나가 갖는 의미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한 언어적 대응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헌정 질서와 법적 가치가 왜곡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 번역이 지닌 책임감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법은 결국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제도이며, 그 언어의 정확성이 곧 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 공약 이행 평가율 조사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공약 이행 현황을 자료로 정리하며,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수치와 지표로 나타난 공약 이행률은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으며, 법과 제도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법은 제정되거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판결문 분석에서는 사법의 논리를, 번역 봉사에서는 법률 언어의 엄밀함을, 공약 평가에서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각각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법을 하나의 추상적 규범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률에 대한 관심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확장시킨 경험이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 법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며, 법이 사회적 책임을 지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향후 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 역시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도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 경희대학교 우 ○ 영

이번 활동을 통해 헌법, 판례, 그리고 지방행정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경험하며 법과 제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각의 활동은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법과 제도가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였다.

먼저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등 네 개 국가의 헌법을 각각 5쪽씩 번역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헌법 조문을 접하면서 헌법이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각 국가의 역사와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 권력 구조, 기본권 보장 방식,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을 비교하며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도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번역 과정에서는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문의 맥락을 분석하고 법적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미성년자 살인미수 및 성폭행 사건을 분석하며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 법적 쟁점,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판례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범죄의 구성요건과 책임 판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형사법적 사고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민선8기 지자체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제 운영과 정책 이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행정 절차와 예산, 제도적 여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활동들은 헌법, 판례,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여 법과 제도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은 조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행정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윤 ○ 정

법학도로서 대학 강의실에서 3년간 법의 이론을 배워왔다면, 이번 동계방학에는 실무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신청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음을 알고 여러 방면으로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입니다. 법정 방청은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혼자 가는 것은 처음인 지라 떨리는 마음으로 입정했던 것 같습니다. 갠스레 겁을 먹어 로비에서 오늘의 법정 안내판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곧장 재판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 개정 중인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처음 겪어 당황했지만, 이후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표시등은 켜져 있지 않았으나 말소리가 들리는 법정 앞에서 직원분께 여쭙본 결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법정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장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혹주점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었었는데, 변호인석에 앉은 인물이 증인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연성이 높아지고 판사가 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석에 한 사람만 앉아 있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가 변호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 변론에서 해당 인물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직접 발언한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를 '피고인'으로 호칭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가 피고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를 조리 있게 변론하고 증인에게 질문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고, 재판의 생생한 긴장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법정모니터링을 마치고 느낀 점은, 민사재판은 신속한 진행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형사재판은 한 사건을 깊이 있게 심문하여 진상관계를 규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짧게 끝나는 민사재판보다 한 사건을 오래 다루는 형사재판이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에 더 직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학기에는 민사소송법을 수강하고, 이후 다시 민사재판을 방청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이행률 조사입니다. 저는 법학도이지만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정치에 대해 기초부터 공부해보자는 다짐을 하였고, 정당과 국회의원 수행하는 역할과 그 방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과 병행하여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니, 이론적 이해와 실무적 적용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훨씬 수월하게 내용이 정리되었고, 자연스러운 복습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공약이행률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대체로 이행률이 높은 공약일수록 적용 대상, 범위, 규모가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수행 과정이 단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책 이행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복잡했지만 얻어가는 점이 많았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3년간 다수의 판례를 접해왔지만, 주로 대법원 판결과 그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공부해왔기에 1심과 2심의 판결문 전문, 그리고 당사자 관계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

다. 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과정을 따라가며, 하

나의 사건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지니는지 체감하게 되었고, 사고의 폭이 한층 넓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번역봉사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싱가포르 법학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이후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 기회를 접하고 곧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국가의 이념과 역사적 배경이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며 헌법의 상징성과 무게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의 사례를 접하며, 통치자의 역할과 권력 구조가 헌정 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통치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고유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표현들을 마주하며, 헌법이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관습을 집약한 규범이라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방학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일같이 위 활동들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활동의 마지막에 이르러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저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실무적 영역에 대한 낯섦이 줄어들고 익숙함이 더해진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은 법률가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번 활동과 맞닿아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며 배움을 이어가고, 이후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강대학교 윤 ○ 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키우게 되었다. 하지만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학부 때 '법'이라는 걸 접해본 것도 필수교양 과목이었던 법수업과 사회학 전공과목이었던 법사회학 수업에서가 전부였다.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특정 사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을 뿐, 해당 사건이 재판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동계 봉사활동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첫 사건은 원고가 대리모로서 대가를 받고 한 부부에게 아들을 낳아준 뒤, 그 아들에 대한 친생자관계준부확인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총 다섯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마친 지금으로선 내용을 파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판결문이라는 것 자체를 직접 찾아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면서 당황스러움이 가중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판결문 속에 담긴 내용을 주어진 틀에 맞게 정리해내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처음엔 그저 종이 위 글자처럼 납작하게만 존재하는 것 같던 사건을 눈앞에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막힘이 없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변호인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 자신의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는지, 법관들은 어떤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어떻게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들을 판결문을 읽으며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많이 배우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조사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민사사건으로는 친생자관계준부확인과 임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했고, 형사사건으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의 수사 과정에 빈틈이 발생하면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할 때 피고인 측은 피고와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촬영물이 증거로서 인정되면서 피고의 반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왔지만, 만약 수사기관의 실수가 치명적이었다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가해자의 반성과 교화를 끌어내는 데에도 실패한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절차와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존 판례가 법률 조항만큼이나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똑같은 법률 조항도 법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원심과 상급심이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결국 상반된 결론에 이르는 케이스를 여러 검토하면서 법관들의 법률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 인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 자체로 완벽하지도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라지거나 수정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유동적인 특성이 있는 법의 핵심 가치와 목적을 존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치열한 고민과 연구 끝에 여기에 자신들의 주관을 더해내는 법관들의 일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게도 이번 동계 봉사활동에서는 개인 사정상 판결문 리서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 두 가지 활동만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 법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더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윤 ○ 랑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진행하며 저희의 일상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다양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매우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진행하고자 했었으나, 봉사활동을 제대로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봉사활동의 신청을 망설이고는 있었으나, 법에 대해 제대로 체험학, 직접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많이 헤매었으나 봉사활동에 관한 사실에 대해 문의할때마다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행히도 모든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번역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번역봉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다른 나라의 헌법을 직접 번역하고, 그 나라에 관한 배경지식 등이 헌법의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가며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역해야 할 분량을 배정받고 번역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다양한 법적인 개념들을 직접 조사해가며 점점 더 처음에는 어려웠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것에도 두 시간 이상이나 걸렸으나, 마지막 페이지를 번역할 때 즈음에는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시간을 할애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흥미로웠다고 생각한 부분은 전문을 번역하는 것과 배경지식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경 정보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헌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었으며, 그렇게 제정된 헌법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번역 봉사를 진행하며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쁩니다. 번역 봉사는 총 4회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진행한 번역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서대로 짐바브웨 헌법, 앙골라 헌법과 아르헨티나 헌법을 번역했습니다.

필수 봉사활동인 공약 이행률 조사 또한 진행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에 처음에는 많이 헤매었습니다. 공약의 수가 많았으며, 공약 하나하나에 관한 기사나 공고문이 뒀는지를 직접 찾아봐야 했기 때문에 제일 까다로웠던 봉사활동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활동 또한 진행해가며 어떤 방식을 통해 공약에 대한 이행 현황을 더욱 쉽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후에 제가 봉사활동의 외에서 직접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그런 공약들에 대한 이행률을 직접 찾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을 처음 확인했을 때 제일 관심이 갔으나,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망설이다가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함에 있어 제일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판결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동인권과 가사소송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판결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은 소송당사자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공개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을 리서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판례의 원심판결은 공개가 불가능한 판결문이었기에 또 다른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부의 학생으로서 판결문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판결문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판결 요지를 읽어보며 해당 판결문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며, 어떠한 주장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에 더욱 수월하게 판결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정도만을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봉사를 진행하며 판결에서 그러한 주장이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주장을 했으며, 어떠한 증거를 사용해 논증 과정을 이어갔는지를 직접 정리해보며 파악할 수 있어서 판결문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봉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했으며, 다양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과거 망설이다가 봉사 신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면 또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이 ○ 빈

처음에는 전공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지만, 활동을 마치고 나니 단순히 경험을 쌓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의 시각과 태도를 돌아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배우는 법과 실제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법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극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문구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줄의 문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산, 행정 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 복잡한 과정이 얹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사업의 추진 단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순히 "진행 중"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고, 어느 단계까지 구체화되었는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막연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 없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고,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을 점수로 환산하는 작업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평가 하나가 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분량과 전문적인 표현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차분히 읽어 내려가며 법원이 어떤 논리 구조로 판단에 이르렀는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결론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 속 문장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표현 하나가 법적 효과를 달리 할 수 있고, 사실관계의 정리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 읽으며 논리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고력은 암기보다 이해와 구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접했던 법리가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으며,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헌법 번역 봉사 또한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국가들의 헌법을 읽고 번역하면서 각 나라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헌법을 구성하였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본권 조항, 권력구조 규정, 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 등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과 비교해보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번역할 때에는 단어 선택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표현 하나가 권리의 범위를 달리 해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적절한 용어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각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실무 경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공약이행을 조사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법적 논증의 중요성을, 헌법 번역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언어의 정밀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법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중앙대학교 졸업 이 ○ 문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의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단지 로스쿨 진학을 위한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를 정독하고, 오티 회신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미래의 나에게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2월,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인 민선 8기 지방단체장 공약점검 및 이행률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점검 및 이행률조사 활동은 서울특별시의 동작구와 마포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학기의 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정리되어 있는 공약의 현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률에 맞게 점수로 평가하고, 관련 보도자료와 행정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이 활동이 단순한 조사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을 통해 행정이 단순히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법, 주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 속에서 조정되고 실행된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

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진로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공약점검 및 이행을 조사 활동을 계기로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숙제나 과제를 한다기 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활동을 통해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헌법을 번역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찾아가며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아르메니아 헌법의 원문을 번역한 뒤에는 그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조항을 찾아 비교해가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은 일국의 지역적,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담은 그릇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분위기를 살펴보면,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지 체감하게 되었고, 실제 법정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판결문이 단순히 사건의 결론만을 담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판결문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쟁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과 논리에 따라 결론에 이르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이나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중점에 따라 1심, 2심, 3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사법부가 실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스펙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이어가면서 법과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만,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기에 활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기에 활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여러 활동을 몰아서 진행하게 된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각 활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활동시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의미한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이 ○ 민

저는 지난번 2023년 봄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복학 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활동들이 공익적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판결문 리서치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활동이었습니다. 둘 다 지난 학기에 했던 활동이랑 비슷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처음 하는 활동인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사법감시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지난번 봉사활동 때는 형법이나 다양한 분야의 판례로 리서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사사건 판례를 5개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는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 없이 흥미로워 보이는 사건의 판례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코방의 부름을 받아 21개월간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뭘 할

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로스쿨에 가서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색이 법조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법을 공부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민법 책을 사서 독학했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복무하는 동안 공부했던 민법 지식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사이 민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이 바뀐 판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5개 판례 중 앞에 신청한 2개 판례는 2023년 판례 중 리서치를 통해 정리해보고 싶은 판례를 선택했고, 나머지 3개 판례는 최근 판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판례는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한 2023다240299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을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존 법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포기를 유도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기존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지되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의사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에 대해 권영준 대법관님이 다수의견, 노태약 대법관님이 별개의견의 입장에서 각각 상대 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을 달았습니다. 짧은 사건으로는 이익형량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용이한 다수의견에 더 공감이 됐지만,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각자 합당한 정의를 가지고 해외사례까지 들며 본인들 의견이 정의에 더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판결문의 형식을 통해 피력하면서 폭넓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리서치를 하면서 판결문 형식으로 논쟁하는 대법관이 멋있고 언젠가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 활동은 이번이 5차 점검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 진천군 송기읍 군수와 충주시 조길형 시장을 맡아 공약이행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번 봉사활동을 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점검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됐던 기억이 있어 조금은 긴장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충주 조길형 시장의 경우 본 적은 없지만 충주시 유튜브를 통해 미디어 홍보 차원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도 해서 기대했었습니다. 개별 공약을 점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일관된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약 내용은 저마다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수표에 있는 평가 기준만으로는 점수를 매기기 힘든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길 수 밖에 없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비슷한 수준의 사안에서도 점수가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가 생겨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차 검수하면서 일관된 점수를 매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문서로 정리하여 어떤 공약이 얼마나 진행됐으며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이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 내용이 방대해 시간은 좀 걸렸으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나 기타 자료로 교차 검증하여 만족할만한 완성도를 갖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지자체장의 역량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충주시는 공약 이행현황을 정리한 문서가 없어 하나하나 직접 찾아야 했고, 홍보 미비인지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진천군과 비교했을 때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조사한 진천군이 공약 이행이나 이행현황 자료 등의 측면에서 행정 역량이 뛰어나서 비교되는 측면이 있으나 충주시가 유튜브 홍보는 많이 하지만 정작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좋은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를 다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봉사활동을 두 번 해도 보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복학 전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이 ○ 비

저는 2025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와 '판결문리서치'를 수행했습니다. 평소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던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제도와 법은 형식적 체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기반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실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선거 승리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 내지는 달콤한 정치적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정부는 구체적인 행정 운영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는 공공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판결문리서치는 지난 가을학기 봉사활동 경험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0도6417 판결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주는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심신미약과 같은 감정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7188 판결을 통해 '민법' 수업에서 배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문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거래 관계에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균형 있는 거래 질서와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을 통해 운전자가 교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부주의의 차원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법적 판단은 교통법규가 위법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17 판결을 통해 공직자와 관련된 뇌물 수수·공여 범죄에 일반 범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대표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 행위는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 체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5도4969 판결을 통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수법이 다양하고 추적이 어려워 검거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적 장치와 금융기관을 연계한 교육을 통한 경각심 제고 등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고,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이 ○ 서

이번 법률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 실제 사회와 행정 속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 처음에 봉사활동을 신청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실시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경기도 군포시와 광명시의 공약을 조사하였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루고자 하는 상위 목표 하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하위 공약을 만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그 하위 공약을 하나하나 완수해 가며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 공약을 깊이있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려해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그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약을 지키고, 포기한 공약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이후 선거에서 공약이행률을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세 개의 판결문을 리서치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재판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유를 따라가며 판결이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판결문을 읽는 과정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내용을 분석하면서 법률 문서가 가지는 구조와 논리를 조금씩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 행정법(1):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2): 행정구제법 수업을 수강하며 행정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이번 봉사활동에서 세 차례의 행정사건만 조사하였는데,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은 개인들 간의 소송에 비해 그 규모도 크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행사한 힘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법리적인 판단을 거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라는 점이 처음으로 깊게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아르메니아 헌법 조문을 번역하는 활동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률 문장의 표현 방식과 기본권 규정의 구조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장은 단순한 번역 이상의 정확성과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헌법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비교해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진 두 나라의 헌법 구조가 다소 유사하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법률봉사 활동을 통해 법과 정책, 행정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법률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이 ○ 태

올 겨울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활동은 저에게 있어 처음으로 대학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이었고, 작년 여름에 이어 봉사활동의 내용에도 만족하고 보람찬 일도 많았기에 활동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활동을 하면서 편해진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스스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다

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 것 같고, 법률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진 이후로는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조, 법조인이 되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측면에서 정치공동체와 사법제도를 바라보았을 때 신뢰와 안정성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제도의 운영과 정치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할 수 있어야 추후에 제가 사법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도 그 제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정치봉사단 활동은 이를 위한 최적의 활동이

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여름과는 다른 활동을 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판결문리서치 1건, 번역봉사활동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강남구의 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했는데 민선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 막바지로 가면서도 공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완수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임기 막바지까지 공약 이행 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다음 민선 9기의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약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보람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3명이 일본 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인지, 납득 불가능한지를 알고 나니 법의 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담은 판결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각하 판결이 기존 판례와 비교했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지를 생각해보면서 법감정의 측면에서만이 아닌 법학의 측면에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더 잘 변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호주와 헌법을 번역했는데 각 국가의 정치체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자 공화국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호주가 과거 주마다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서 이를 전국적인 투표에 반영할 때를 고려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웨스트민스터 헌장 채택법을 번역한 경험은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더 잘 공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겨울을 법률봉사사와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언론, 법조 등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며 효능감을 느꼈고, 개인적인 법조인의 꿈에도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일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 경북대학교 이 ○ 민

공학을 전공하며 도면과 제어 수식, 데이터에 익숙했던 저에게, 과거 대우고등법원 인턴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를 촘촘하게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작동 방식에 눈을 뜨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에 참여하며 수행한 총 32시간(번역 봉사 15시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7시간, 판결문 리서치 10시간)의 활동은, 막연하게 느껴지던 법과 행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수없이 쏟아지는 공약들이 당선 이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지연되거나 폐기되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직접 추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 공공사업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분석하여 청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때처럼, 지역 사회의 행정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단순히 공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행의 궤적을 쫓으며, 책임 있는 지역 행정을 이끄는 원동력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함께 15시간 동안 진행한 '번역 봉사'는 낯선 법률 용어들과 씨름하며 언어의 무게를 체감하는 정적인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의 헌법과 법령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치환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법적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 법체계의 니앙스에 맞게 다듬는 고도의 논리적 작업이었습니다. 공학에서 하나

의 변수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 법 조문에서도 단어 하나, 조사 하나의 선택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며, 법적 텍스트를 대하는 엄밀함과 신중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게 몰입했던 활동은 10시간 동안 수행한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지는 판결문을 깊이 있게 정독하며, 실제 재판부가 어떤 논리와 법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첫 번째 사건인 '2024다228777 손해배상(기)'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였는지를 다룬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조약의 문언적 해석과 권리남용을 들어 소를 각하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일본 구 회사경쟁법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속지주의 원칙과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여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 간 조약의 틀 속에서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원칙을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치열한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한 '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경영 성과급(PI, PS)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며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원이 '임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단체협약의 명칭보다는 지급의 계속성과 확정성,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해석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막연히 뉴스 기사 속에서만 존재하던 '법과 행정'을 현실의 생생한 움직임으로 체감하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32시간의 여정을 통해 기른 비판적 사고와 객관적 분석력은 앞으로 제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보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에 의해 완성된다는 확신을 얻으며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부경대학교 이 ○ 예

이번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던 경험과 시간이 된 것 같다. 실제 법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를 새롭게 알 수 있었던 판결문 리서치와 직접 법원에 찾아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알고 재판 진행과정 및 사법체계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정모니터링과 민선 8기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며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봉사과정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약간 부족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총 5개를 했다. 형사와 민사 및 행정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쟁점은 무엇이고 각급 법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는 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톡킹범죄, 주거침입,개인정보,손해배상,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사나 행정보다는 형사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활동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은 단순히 적혀있는 조문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의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명확해 보이는 법이라도 실제 판결문을 읽다보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톡킹범죄 판결문을 분석하며 스톡킹을 침해범으로 볼지 위험범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법해석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또한 판결문을 보며 우리가 평소에도 초점을 두는 결론만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진 자신만의 논리구조를 적용하며 단순하게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복잡한 과정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인상깊었던 것은 하나의 판결문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무게였다. 중이에 적혀있는 문장이 누군가에게 생계,명예 등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느끼며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임감의 크기를 체감했다. 전체적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책으로 배우는 법리와 실제 현장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법정모니터링은 실제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모두의 표정과 말투를 느끼며 재판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판사가 냉정하게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조정자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측을 주장을 균형 있게 듣는 것을 보고 판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증인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직접 보며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법은 논리뿐 아니라 설득과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법이 살아있는 절차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을 갔다 와 보니 법이 주는 책임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감하며 사법체계의 철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이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과정에서는 각자가 내세우는 수많은 공약이 제시되지만 실제 행정과정에서 실행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고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였구나를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리 완료된 사업이라도 형식상일 뿐 실제 체감도는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공약이행 평가는 단순한 달성 여부가 아니라 정책의 질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의 현실성과 정치적 책임성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집행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내게 법은 정책이나 선언이 아니라 해석과 이행 과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뒤따르는 책임감을 고민하게 되고 법과 제도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판결문리서치에서는 법의 논리적 적용과 구조화된 사고의 과정임을 깨달았고 법정모니터링에서는 재판을 통해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절차와 소통중심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아무리 좋고 필요한 정책이나 법일지라도 현실성과 실행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배웠다. 이를 통해 법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 현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와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2가지를 중점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활동은 대법원의 최신 판례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선정하여 그 판결 요지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결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판결문 속에 담긴 법리가 변화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과정은 매우 치열한 사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판례들이 개인의 권익 보호와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는지 분석하며, 법이 단순히 정지된 문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가치 체계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지니는 사회적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러 진행한 민선 8기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조사는 앞선 판결문 리서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약

속들이 실제 예산 배정과 입법 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제 이행 수치들을 대조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 단순히 득표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약속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과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서 이론적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다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와 객관적인 통찰력을 기르는 데 있어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쏟았던 노력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정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활동들을 주관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 고려대학교 이 ○ 민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며 나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평소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쌓아왔지만, 실제로 법과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점검하는 활동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봉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 내가 수행한 주요 활동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해외 헌법 번역 활동이었고, 둘째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활동이었다.

먼저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카자흐스탄의 헌법 일부 조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작업을 진행해 보니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의 선택이 법적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체제 역시 조문의 표현 방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직역을 하기보다는 한국 법률 문체에 맞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헌법이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적 가치와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 중 필수 활동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강원도 영월군과 경기도 광명시를 맡아 각 지자체장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공약 이행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약의 추진 단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공약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이미 완료되었는지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여러 자료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지역 개발, 교통, 복지,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시민 사회의 감시 기능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민주주의에서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유권자와의 책임 있는 계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민주적 통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법과 제도가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었다. 특히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서는 법이 국가의 역사와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공약 추진사항 점검 활동을 통해서도 민주주의 제도가 시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 제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와 법의 관계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서강대학교 이 ○ 나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각 지자체의 공약 이행 자료를 찾아보고 그 이행률을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 손으로 뽑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무슨 일을 하기로 계획했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는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지방 행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지자체단체장들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남 완도군을 웰니스, 해조류를 주제로 마케팅하기 위해 공약한 것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박람회 개최, 대회 수상 등의 실제 실적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군 단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누군가의 생계, 삶과 직결되는 공약임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시작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약을 바라보며 국회의원을 뽑았을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독촉하는 외부의 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봉사활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내가, 국민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는 해도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도 없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손을 놓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의 활동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들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변인과 시민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후보자를 볼 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관련 분야에 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 일반 임 ○ 주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며 늘 가슴에 품었던 생각은 '법은 현장에서 사람을 도울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곁을 지키며 실무를 배웠던 시간은 저에게 참 소중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법과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만 법정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3자의 눈으로 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이 오가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결국 이런 공정한 과정 하나하나에서 쌓인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이 올바르게 굴러가는지 지켜보는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행정학 지식들을 떠올리며, 지자체장들이 내건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시민들과 맺은 소중한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상담센터

터 현장에서 만났던 이웃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이 공약이 실제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았을까?'를 고민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보다 그 이면에 담긴 행정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시간이었습니니다. 사실 짐바브웨 헌법을 번역하고 판결문을 찾는 일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나라가 달라도 '인권'과 '정의'라는 법의 본질은 어디든 비슷하다는 점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을 도울 때 느꼈던 제도적인 아쉬움들을 이런 공부들 통해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었고, 법학 전공자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돕는 일이 '급한 불을 끄는 손길'이었다면, 이번 활동은 '불이 나지 않게 시스템을 살피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차가운 법 지식만 내세우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않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임 ○ 지

우연한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는데,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번역봉사, 공약이행률조사 등 다양한 봉사가 평소 관심 있었던 법과 사회라는 주제에 딱 맞는 활동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겨울학기에 신청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넘치는 의욕으로 모든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상의 이유로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공약이행률조사와 번역봉사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알아보고자도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에 본인들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다. 충청북도 단양군과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조사를 담당했는데, 4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만큼, 현재 시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군민들,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내 생각보다 아주 많고 아주 세세한 공약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서 각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실제로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공약을 찾아보고 잘 이행되었는지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약 하나하나가 해당 지역민들의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공약들이 임기 내내 시행되었고 마무리되고 있어서 4년 동안 지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행되지 않은 몇몇 공약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특히 재정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무엇인지, 나아가 공약이 임기 동안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다. 지방자치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만큼 지역민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적으로 더 나은 공약들을 고안할 동기를 가질 것이고,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공약들의 이행률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봉사는 번역 봉사이다. 영문으로 쓰인 짐바브웨,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했다. 번역을 담당하게 된 국가들은 평소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생소한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헌법을 바로 번역하기에 앞서 각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특히 어떤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 살피고 나서 헌법을 번역했더니 각 국가 헌법들이 닮아있

으면서도 나름의 특색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헌법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당연히 각 국가의 헌법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각 나라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다. 잘 알지 못했던 국가들의 역사와 사회정치를 헌법을 통해서, 또 각국의 헌법을 그 역사와 사회정치를 통해서 연관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의미 있었다. 학부 수업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경험에 더하여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헌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겨울학기에 진행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와 헌법 번역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작해서 국제 사회까지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

○ 서강대학교 임 ○ 서

2025년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기에 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을 리서치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제5조의9제4항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로 핵심 쟁점이 제기되었다. 1심에서는 해당 법의 입법 취지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피고의 전화 발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들을 재검토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상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였다고 과정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해석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예정한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통해 판례가 사실관계의 인정, 증거의 채택, 법률 조문의 해석과 결론이 단계적으로 결함된 논증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법원이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설득력과 법리적 정교함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예멘, 잠비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헌법을 번역하며 각국의 헌법 체계와 가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접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역사 및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헌법이 각 국가의 정치적 현실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권력의 제한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외에도 경기도 화성시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와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약속이 실제 시민의 삶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법률이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 판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체감하였다.

○ 전남대학교 장 ○ 진

이번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저는 시민사회가 공공의 영역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방

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였고, 둘째는 번역 봉사였습니다. 먼저 공약이행률 조사는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미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결산 보고서 등을 교차 확인하며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당히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업의 착수 여부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공약의 내용과 비교해 축소·변형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나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번역 봉사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률 및 정책 관련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를 다른 언어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률 용어 하나, 행정 표현 하나에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언어 능력뿐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함께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두 활동을 병행하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가치였습니다. 공약이행률 조사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었고, 번역 봉사는 이러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두 활동 모두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공 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시민으로서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와 문서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자료 분석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스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행 완료'라는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실제 성과와 시민 체감도는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 정리에 그치지 않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은 대부분의 과정을 혼자 수행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최종 정리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만큼 집중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판단이 모호한 사례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준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분석 능력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맡더라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 경북대학교 장 ○ 현

봉사활동으로 묻든 알찬 방향을 보내다

대학 저학년 시절부터 함께해 온 봉사활동이 어느덧 4차례가 되었고, 봉사자인 필자 역시 학부 마지막 학년인 4학년의 시작을 맞았다. 이로써 봉사활동 대상을 수상할 요건을 갖추었지만, 단순히 수상이 아니라 꾸준히 봉사활동을 정진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에서 더욱 보람이 느껴진 것 같다. 물론, 이것이 봉사활동의 종결,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다. 졸업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다. 이는 대학생의 시작과 끝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과

함께하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앞으로 관련 직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욱 탁월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차례의 봉사활동을 미루어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가장 열심히 수행한 활동은 아무래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이는 주요 1, 2, 3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쟁점 파악, 어려운 용어 정리, 공판 당사자 조사 등 판결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석하는 활동이다.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약 20개에 달하는 사건 판결문을 리서치 했고, 각 사건이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60개의 판례를 분석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동 중 판결문 리서치에 특히나 몰두한 이유는 대학 수업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외에도 이를 통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로스쿨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Leet에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판결문 리서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문장을 쪼개고 빠르게 글의 주제와 쟁점을 파악하여 어려운 지문을 정복해나가는 능력이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방면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 4학년으로 로스쿨 입시를 눈앞에 둔 필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걸 마인드' 장착에 힘을 쏟을 것이다.

○ 강원대학교 장 ○ 현

저는 화학공학과 학생이지만 평소 법률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는 아니지만, 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쯤 직접 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률은 일반인에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활동 기간 동안 필수활동인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포함하여 총 3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느낀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서는 두 명의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과 실제 이행 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공약이행률을 직접 조사해 보는 경험은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공약을 듣는 것과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공약을 보통 지역 사업으로 표현하였는데 몇몇개의 사업은 허가, 예산 등등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할 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지만 말로 얘기하면 파격적이지만 한 것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투표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공약이행률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의 공약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 특히 흥미로웠고 5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뉴스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것들과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들을 고려하여 판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 형사사건이 네 건, 민사사건이 한 건이었습니다. 다섯 사건 모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분쟁에 관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등 판결문에는 이런 죄목으로 적혀있었지만 1심,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리서치하며 사실관계부분을 정리하였을 때 생각보다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본 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 직장동료였던 사이 등 일상생활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범죄와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판단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쟁점, 주장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문장이 길고 복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 읽을 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번 읽으며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점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써서 그런 것 같지만 일반인을 위해 단순 구조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법률봉사활동은 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조사를 통해 지역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실제 분쟁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률 분야는 여전히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학교 장 ○ 서

2024년 여름학기과 겨울학기, 그리고 2025 여름학기에도 소비자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한 이후 이번 2025년 겨울학기에 네 번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실 분석),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 과정에서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46800)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평소 인권 보장과 사회복지 제도의 형평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와 법적 권리 사이의 괴리를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하는지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 '차별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다수의견의 논리를 파악하며, 헌법상 평등의 가치가 실질적인 행정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이번 리서치는 미래 법조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을 정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은 10대 일간지인 경향·서울·한겨레신문, 국민·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일보의 사실들을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2월 둘째 주에 게재된 사실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선 압승에 따른 우경화 우려와 한·일 중·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사법개혁 3법 추진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마다 강조하는 가치와 비판의 지점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며, 다각적인 프레임으로 사회 현상을 읽어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작성하며, 단편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분석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이번 학기는 단순히 법리와 시사 상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변화를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력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무게감과 언론사들의 치열한 논리 싸움을 직접 마주하며 상상과 소통하는 법의 역할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쌓은 리서치 역량과 분석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 활동에서는 법정 모니터링이나 더 다양한 법적 쟁점 분석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 인천대학교 장 ○ 슨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가졌던 포부는 내가 가진 법학 전공이라는 요소를 봉사활동에 잘 활용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강의실에서 알기 쉽게 정리된 개념들만 보다가 실제로 실

생활에 활용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했던 첫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비록 전공 수업을 들으며 판례를 읽어본 경험은 많지만 이미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를 읽어봤을 뿐 판례를 통해 내가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 보는 판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부터 어떻게 풀어 적어야 이 보고서를 읽을 누군가가 이해하기 쉬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했다.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법학을 배우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판례는 모든 사람이 읽어봐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글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판결문 리서치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은 활동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은 어렵다기보다 신기했다. 지방자치행정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홈페이지에 어떤 공약을 내걸었고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다 공개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생각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 많고 세세한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정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국민으로서 감시하고 있다는 효능감도 느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은 공약을 볼 때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내가 조사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약임을 생각한다면 그런 공약까지도 이행하도록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활동은 언론모니터링이었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활동이기도 했다. 이제명 정부의 사법개혁정책 보도경향적 주제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활용하여 진행했다. 사실 기사를 읽으면서 둘의 차이점을 잘 비교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진행했는데 막상 두 언론사의 기사를 다 읽어보니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논조의 기사가 등장했다는 것에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언론은 사실 위주로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립적인 것처럼 게시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주체였다. 그런 점에서 언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뉴스인데,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을 전달한다면 어떤 언론사를 읽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이 편향적인 의견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사로부터 이슈를 접해야 할 때에는 다양한 언론사를 참고해야 함을 느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 분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비록 법조인을 꿈꾸고 있지만 법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했던 봉사활동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법조인을 꿈꾸게 된 계기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작게나마 완수했던 것 같아 의미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만큼 얻어간 것도 많았다. 내가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결국 시민의 눈으로 법과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마한가지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결국 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법과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바뀐 법과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기 위한 시민의 참여까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마치더라도 언론을 통해 계속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공부할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장 ○ 수

지난 2024년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스펙 이상의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당시의 기억이 긍정적으로 남아있던 터라, 2025년 겨울학기에도 주저 없이 다시 이곳을 찾게 되었다. 사실 대학 시절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변호사 선배의 조언을 들었을 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거치며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법과 정치가 시민의 삶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2024년 활동 당시에는 번역봉사와 의정 모니터링에만 집중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보고자 마음먹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활동에 더해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까지 영역을 넓혀 총 44시간이라는 값진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겨울학기 의정모니터링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약을 분류하는 수준의 난이도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실제 이행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특히 군수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적인 이행률과 실제 추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꼼꼼히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대조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최종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정치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 기여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했다는 점이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도 정작 우리 동네 정치인의 공약이 얼마나 의미미한지, 혹은 단순히 지면을 채우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지 냉철하게 따져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공약의 실효성을 분별하는 눈을 길렀고, 정치인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달았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갈고 닦은 시민 모니터링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이번 활동 중 가장 새로웠던 경험을 꼽으라면 단연 판결문 리서치였다. 단순히 판결의 법리를 분석하는 일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 그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판결이나 변호를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선택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다. 평소 관심 분야였던 지적재산권법 관련 판결들을 중점적으로 리서치했는데, 적용되는 법률은 비슷할지라도 각 사건의 맥락과 내용은 천차만별이라 매 순간 몰입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리서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2회의 법정 모니터링은 나에게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서류와 글로만 접하던 법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꿈은 더욱 섣부름이 깊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은 재판 일정이 5분 단위로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했는데, 이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생생한 실태였다. 발로 뛰며 얻은 정보들이 나의 식견을 한층 넓혀주었기에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4개국의 번역 봉사를 진행하며 국제적인 시각 또한 넓힐 수 있었다. 각 국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 위에 어떤 정치체제를 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호주 헌법을 번역하면서 영연방 국가들의 독특한 정치 체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영국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향후 이들의 역사와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겨울학기 내내 쉼 없이 달려온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 잊지 못할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봉사자의 활동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끌어주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담당자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번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잊

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 덕성여자대학교 정 ○ 현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학과에 다니면서 법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해서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례를 읽고 관련 기사를 조사하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지자체장들의 공약을 조사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 같은 주제에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언론사를 비교하는 언론 모니터링 활동 등을 조사하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각각 하나씩 정리하였는데 판례를 읽고 당사자를 찾고 사건 개요를 정리하는 활동이 가장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는 법을 배우고 법률을 읽지만, 직접적으로 판례를 조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정해진 것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직접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의미있는 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성향이 다른 두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하였는데 기사를 읽기만 할 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 신기했습니다. 각 기사의 성향이 기사의 제목, 내용, 사용된 표현 등 하나하나에 보여지며 평소에 사람들이 한쪽 기사만 읽는다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왜곡된 성향을 가지게 될 것 같아 무섭기도 했습니다.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는 비판과 강한 반대 표현을 사용하며 한 언론사는 무조건적인 찬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평소처럼 읽었다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찾아볼 생각도 없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가장 어려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약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의 sns 그리고 각 공약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조사하면서 찾아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에 적힌 이행을 또한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그 점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행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설이 노후되거나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단체장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공약을 보고 공약이 좋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생각되는지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그저 대외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기만 했는데, 그 생각이 부끄러울 만큼 법이 실무에 쓰이는 모습을 알게 되며 배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외활동 중 하나가 아닌 미래에 제가 가질 직업에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학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판결문 하나에 담긴 참고법률과 직접적으로 근거가 된 법률들을 보면서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이 사건의 근거가 되고 사용되는 실무를 직접 보고 정리하는 것은 말로 정말 가치 있는 활동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통해 실무에 가까운 법에 익숙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를 처음 경험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배우는 법이 활용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알고 미래에도 현실에 도움이 되는 법을 실현할 줄 아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정 ○ 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전공인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향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단순히 진학 준비를 위한 이력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제로 법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는 기대 또한 컸다. 결과적으로 이번 활동은 법학도로서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문적 관심을 실천적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수행한 주요 업무는 판결문 리서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을 조사, 그리고 외국 헌법 번역 봉사였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학교 수업시간에 접하는 판례는 대체로 핵심 쟁점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을 직접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법적 쟁점, 적용 법조문,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논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결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법원이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추적해보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강의실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전처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가족법과 형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실제 판결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인상 깊었다. 예컨대 형법 수업에서 배웠던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교과서 속 개념이 추상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법과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작용의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다시금 복기할 수 있었고, 이는 학습했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다 심화되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새로운 적을 다지게 되었다.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본다는 점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을 조사 활동 역시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업무 범위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막연하게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번 활동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정 영역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단순히 대규모 정책이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등 설치나 주차장 확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체계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자료와 행정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과 행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공공 영역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헌법 번역 작업 역시 또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헌법은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규범 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적 번역을 넘어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

과 정치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가의 헌법이 어떠한 구성과 기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와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동일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그 의미나 적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덕분에 번역 작업 또한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도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일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률 관련 이슈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보도되고 해석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역시 법학도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면서 법학이 단순한 이론 학문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석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법학 공부를 이어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도로서의 진로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법률가로 성장하고자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 ○ 완

이번 학기에 내가 번역한 헌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번역하고 각 국가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독특한 정치체제와 연결되는 헌법 조항, 그 나라의 문화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짐바브웨의 경우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짐바브웨가 독립 이후 정치적 갈등과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많은 국민의 인권이 탄압되고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렸던 역사를 반영하여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로버트 무가베의 오랜 독재가 끝난 이후에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곤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의 조항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다가왔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지난 2021년 탈레반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로 강력한 독재정권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의 여러 조항들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 테러조직인 탈레반 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잠비아의 경우 앞서 두 국가들과는 달리 비교적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 임기제한, 헌법재판소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권력분립 구조와 지방행정에 관한 조항에서 행정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안도라의 경우 앞서 세 나라와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헌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공동군주제라는 특수한 국가 형태를 헌법을 통해 제도화하였으며, 국가원수로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우르헬의 주교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흔하지 않은 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현대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가 절충된 형태의 헌법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공약 이행을 조사의 경우 지난 학기에 조사한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추상적인 공약이 많은 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어떠한 공약은 정말 완벽하게 이행되었지만, 어떠한 공약은 전혀 진척이 없는 등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공약 이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우리 유권자들 역시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공약이 이행되는지 관찰하여 지자체에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공약 이행은 물론 시의 행정, 관리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성균관대학교 정 ○ 윤

2025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필수활동인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와 더불어 헌법 번역과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 참여한 봉사활동이었던 만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은 헌법 번역으로, 짐바브웨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활동이 아닌 헌법을 번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제도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짐바브웨의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사와 외교부 문서 등을 찾아보며 번역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번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제도와 법체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는 언론 모니터링과 더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두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러 공약을 살펴보고, 해당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 과정에서 공약이 축소되거나 방향이 달라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행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이었던 언론 모니터링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활동이었습니다. 10개 주요 일간지의 사설 보도를 비교하면서 각 사설을 스크랩하고 같은 이슈를 각 일간지가 어떻게 보도하였는지를 비교하면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마다 강조하는 지점과 해석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의 일간지가 비슷한 논조로 보도한 사안도 있었지만, 비판의 강도나 사안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듯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성향의 일간지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치우친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번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점 중 하나였습니다. 언론이 어떤 부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번 활동을 통해 언론 보도를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관점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사회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정 ○ 수

2025년 겨울학기에는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점검 조사,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번역 활동에서는 베네수엘라 헌법 24~29페이지를 담당하였다. 해당 부분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의 자원 제공 의무, 국민의 스포츠·여가활동을 누릴 권리, 경제권, 원주민의 권리, 환경권, 국민의 의무, 정부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평소 접할 기

회가 없었던 낯선 나라의 헌법 체계를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원주민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국가가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 원주민의 고유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했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원주민 문제라 하면 막연히 미국의 사례만을 떠올렸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 역시 원주민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을 두고 있을지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단순히 번역 작업에 그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인구·수도·종교와 같은 기본 정보와 더불어 헌법의 역사적 배경까지 조사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민선 8기 정당선 경기도 평택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시장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나 이행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철 공약이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점검 조사 활동은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공약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으며,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이 느껴졌다. 또한 하나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예산 배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공약이 채택되고, 그중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평택시가 자동차·반도체 산업 특화 도시이자 미군 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네 건의 판례를 선정하여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학부에서 배운 법 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각 판례의 쟁점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양측이 어떤 지점에 서 대립하는지,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학습한 이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은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또한 사실관계와 쟁점 정리에 그치지 않고, 담당 판사 및 법정 대리인 정보,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소송과 판결의 실제 흐름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작년 가을학기에도 이어져 2025년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어가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진로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다. 또한 매 학기마다 새로운 주제로 구성되는 필수 활동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참여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조 ○ 의

이번 2025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한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제가 맡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원도 영월군 최명서, 강원도 양양군 김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은 각 82, 58개로 적지 않은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공약이행률 조사를 해 보니, 조사 당시 기준으로 민선 8기 임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두 사람 모두 꽤 높은 이행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방문해 본 적도 없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약 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초기 공약과 대조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확장됐는지 여부를 직접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공약이 1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공약이 전부 실현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특정 사업이 해당 지역에 맞지 않아서 무산된 경우도 이번 활동에서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각 공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지, 실제로 계

획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등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활동은 번역 봉사활동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헌법과 안도라 헌법에 대해 일부 번역하였으며, 헌법 번역 전 앞부분에 해당 나라 소개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 각 나라의 위치, 종교, 언어, 정부 형태, 헌법 제정 배경 등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국의 헌법을 번역하다보면, 사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 중간중간 막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국의 정부 형태나 문화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어떤식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국회가 상원에 해당하는 메시라노 지르가(원로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웰레시 지르가(민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원제로,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임을 알 수 있었고, 안도라의 경우 파레아주라는 공동 통치 계약을 체결한 공동 국가원수제의 공화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번역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국의 자세한 정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민사사건 한 가지, 형사사건 두 가지로 총 세 개의 판결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여진다고 안내된 후원금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경우에도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처음 소 제기 당시 원고 23명으로 시작하였지만, 1심과 2심 연달아 패소 후 3심에서 원고 한명으로 상고를 한 사례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후원자의 의사와 불일치가 발생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3심에서는 사용 목적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후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착오로 인정하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웃 간 층간 소음 관련 분쟁으로 시작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몇 달 간 수차례에 걸쳐 보복소음을 전달하였고, 이런 행위가 스톱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1,2,3심 모두 스톱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웃간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1도55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기준 피고는 별거중이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속 사진첩을 들어가 사진을 탐색하고 몇 차례 다운로드 하여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타인과의 민사 소송에서 해당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로그인 되어 있던 계정에 접속하여 사진을 탐색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미 로그인 되어있던 계정에 접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마치면서 어떤 사건은 며칠에 걸쳐서 조사를 끝내기도 하는 등 시간이 꽤나 걸리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해당 사건들을 혼자 힘으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법적 쟁점을 추출할 수 있었고, 법원이 어떤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필수 봉사활동 공지사항을 뒤늦게 확인하여 급한 마음으로 활동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얻어진 것이 많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의 다른 봉사활동들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 충남대학교 대학원 조 ○ 연

법률소비자연맹의 번역봉사활동을 통해 베네수엘라 헌법과 잠비아 헌법을 번역한 경험은 제게 헌법학의 비교법적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학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외국의 헌법 조문을 직접 해독하고 우리 법체계와 대조하는 일은, 헌법이 각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학문적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번역의 가장 큰 의의는 헌법을 '보편적 규범'이자 동시에 '국가 특유의 정치문화적 산물'로 이해하게 된 점입니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부한 후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해당 국가의 헌법의 형성 배경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위 규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국가간 헌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은 헌법이 단지 권력구조를 규율하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이념적 방향성과 역사적 경험을 집약한 체제 그 자체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역 활동의 과정은 헌법해석의 미시적 감각을 길러주었습니다. 각국 헌법의 용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외국의 법률 용어를 한국에 있는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능력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각국 법체계에서의 기본권 개념, 조문 구조 등을 고려하여 같은 표현도 섬세하게 다르게 번역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작업은 헌법 규범의 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정밀성과 체계적 맥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비교헌법의 방법론적 의의를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외국 헌법의 번역과 분석을 통해 헌법의 기능과 한계, 그리고 보편적 인권규범이 각국의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헌법의 규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체성을 헌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을 배운 후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학문적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 정말 보람됩니다.

번역봉사활동은 단순한 번역 또는 봉사의 차원을 넘어 비교헌법학적 통찰을 얻는 실질적 학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해하는 관점을 체득하게 되었고, 앞으로 법학도로서 국제적 범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제 어학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탐구하며, 법과 국가의 본질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하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조 ○ 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자칫 딱딱하거나 법조인들만이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 적용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법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면, 법이 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적용 과정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글로써 그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강하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조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은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활동에 대해 법보다도 문외한이었는데, 그렇기에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더욱 많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세부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임기가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저의 예상과 달리 상당수의 공약들이 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공약의 분포를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가 관심을 두고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약이행률조사를 진행한

울산광역시에 대하여도 많은 배경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이 지역사회 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활동과 조사 자료들이 많이 공유되어서 주권시민들이 더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실제 재판 과정을 방청하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재판 방청이 처음이라는 것과 법정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재판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합쳐져 다소 위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 내외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도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증인신문 과정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기 전에는 증인신문 과정이 증인과 관련된 특정 부분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 법정에서 증인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들이 재확인되고, 주요 쟁점들이 드러났으며, 양측의 입장들을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개입이 크지 않고 검사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주를 이루었지만, 때에 따라 판사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판단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경우에 따라 증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보다 판사의 질문에 더 명확한 답을 내놓기도 하였기에 법정에서 판사의 중재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재판이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떤 판결로 이어지는지까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사실은 무엇일지 궁금하였고, 이러한 생각을 동기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원의 1심, 2심, 3심의 판결문을 모두 살펴보고 각 판결의 쟁점은 무엇인지, 양측 주장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법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판례를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주로 정리된 쟁점만을 살펴거나, 판결 요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결 전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기에, 길고 낯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할 때는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판결문의 호흡이 길고, 부동산과 영업 등 익숙하지 않은 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도 사건의 개요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뒤따르는 법리와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결 수월해진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같은 쟁점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삼심제도가 의도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쟁점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만큼 법 혹은 법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법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법은 불완전하고 유동적이며 해석의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 활동 말미에는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조사하며 기사에서 본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목적이 일반인의 판결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 만큼, 판결문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깊이 있는 이해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법과 판결에 대해 피상적이지 않은 보다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한경국립대학교 조 ○ 유

이번 학기에는 언론 모니터링 활동과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사회 제도와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경제 분야 언론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평소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던 경제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2026년 한국 경제 전망'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제 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제성장률 전망,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 저성장 지속 가능성, 환율과 금리 변수, 정부 정책 평가 등 다양한 거시경제 이슈를 정리하면서 동일한 경제 상황이 언론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을 둘러싼 보도에서는 동일한 경제 지표를 두고도 언론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일부 보도는 성장을 상승 가능성을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한 반면, 다른 보도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는 시각과 산업 구조의 편중 위험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 기사 역시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일정한 관점과 해석의 틀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언론 보도를 비교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경제 뉴스를 보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환율, 금리,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경제 현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성을 느꼈다. 언론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경험은 경제와 정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서 세계 여러 국가의 정치 제도와 법 체계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알제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잠비아의 헌법 일부를 번역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알제리 헌법을 번역하면서 대통령 중심의 정치 체제와 국가 권력 구조가 헌법 조문을 통해 어떻게 규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법률 문장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짐바브웨 헌법에서는 정부 승계와 국가 권력 이양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정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 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권리 보장과 경제 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잠비아 헌법에서는 의회의 회기 운영과 입법 절차 등 국가 운영의 제도적 구조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국가들의 헌법을 비교하면서 헌법이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의 정치 체제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기본 규범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번역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법률 문장을 단순히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특히 헌법 번역은 처음 접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법률 문장 특유의 긴 문장 구조와 번역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일반적인 글과 달리 헌법 조문은 형식적인 표현과 복잡한 문장 구조가 많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원문의 구조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용어를 찾아보고 여러 표현을 비교하면서 법률 문서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 헌법을 직접 읽어 보면서 각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원칙과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번 학기의 두 활동은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사회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가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경제 정책

과 사회 문제를 보다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정치 제도와 법 체계를 비교하며 법의 역할을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 제도와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해 주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지 ○ 현

이번 겨울학기에는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 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먼저 베네수엘라 헌법 번역 봉사에서는 헌법 44쪽의 Article 200부터 49쪽의 Article 234 앞까지 번역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헌법조문을 직접 번역하면서 국가권력 구조와 입법절차를 공부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국회의 입법절차, 법률 제정과정, 대통령의 공포 권한 등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국회의원 범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국회의원에 관한 범죄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에 그 내용이 전속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회기 중 체포되지 않지만, 베네수엘라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대법원만이 체포나 소추를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베네수엘라의 정치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 작업을 통해, 법치국가에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조문에 대입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문 하나하나와 단어 하나까지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의료분쟁에 관련된 판결문들을 공부해 보았다. 먼저 대법원2023도1907 판결을 통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가가 얼마나 엄격한 심사 및 평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 2024도9443 판결에서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할 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2020주36892 판결을 통해서도 의료기기 사건에서는 시장 지배력이나 거래상 지위만으로 위법을 인정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경제적 구조를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히 행위의 외형이나 직관적인 불공정성에만 의존하여 판단하기보다 해당 산업의 구조, 사회적 위험성, 규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최 ○ 우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시작하게 된 어찌보면 그리 거창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감문을 써보면서 돌아보니 봉사 활동 경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봉사활동 시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재밌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법과 제도'라는 실체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판결문 리서치나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정도의 활동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참여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 이행률 조사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정리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판결문이 생각보다 읽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뉴스기사나 간단한 판례 요약 정도는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읽을 때, 문장도 길고 생소한 법률 용어도 많았으니 처음에는 어딘가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판결문을 정리하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는 여러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혼재해있으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 부분이 사실 관계이고 어느 부분이 법원의 판단인지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문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거나, 어려운 법률 용어는 의미를 찾아보고 간단한 말로 바꾸는 작업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판결문을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까지 생각해 보고 과연 나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약이행률조사 활동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 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그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찾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약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록이나 보도자료, 정책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약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추진 중"이라는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이나 정책 자료처럼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요령도 생기고, 처음보다 자료를 보는 눈도 조금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이나 정책 자료는 대부분 전문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진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활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이나 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조금 더 쉽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판결문을 깊이 읽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조사 역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 다.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조금 막막하게 시작했던 활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험이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최 ○ 연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두 번째 참여였다. 지난번 활동을 하면서 법과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전보다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법조인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는 다양한 법 관련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판결문을 각각 하나씩 분석하였다. 내가 다룬 사건은 스토킹 사건과 상간과 관련된 이혼 사건이었는데, 사건 자체가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사건의 내용 자체에 시선이 쏠리기 쉬웠다. 하지만 판결문을 차분히 읽어보니 판사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에 휘둘리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스토킹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판단 과정을 보면서 판결은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현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시민들이 지방 행정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공약의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실제로 모든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라기보다는 행정과 정책의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처음 경험한 활동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새롭게 느껴진 활동이었다. 이전에는 언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하며 읽어보니 사실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기사 전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결국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지점의 차이가 언론사의 성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어떤 언론사는 특정 이슈를 크게 다루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다루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보면서 하나의 기사만 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볼 때는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함께 살펴보면 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 그리고 언론이 사회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홍익대학교 최 ○ 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강의실의 텍스트로만 접하던 법과 정치가 실제 시민들의 삶이라는 거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단순한 자료 정리나 리서치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이행조사를 진행하며 제가 마주한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판사들의 논리 속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상환 방법을 다룬 2024다221455 판결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절차적인 제약을 근거로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으나, 대법원은 법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곧바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분석하며 법이 기계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후원금 반환 청구(2025다217976)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2025두31014) 같은 다양한 민·행정 사건들을 검토하며, 판결문의 문장 하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혹은 평생을 바친 노동의 정당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하고 설문을 작성하며 법률용어가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높은 벽으로 느껴질지 고민하게 되었고, 법조인이 된다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법리적 완결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이행조사 활동은 사법의 영역을 넘어 행정과 정치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사례를 조사하며 스마트팜 조성이나 외국인 인력 지원 정책들이 지역 신문 기사와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실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확인했을 때는 지방 자치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반면, 문경시의 사례처럼 한국체육대학교나 숭실대학교 캠퍼스 주차 공약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선거 공보물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수치와 데이터로 분석하며, 선거 이후의 감시가 부재할 때 민주주의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체감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살이 뒤지고 관련 기사를 대조하며 점수를 매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리한 이 데이터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당선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시민의 기록이 된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가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판결문 속의 법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며, 선거 공약은 주권자와의 엄중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학도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활동이 제게 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정함과 투명함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최 ○ 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경험을 넘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근간을 시민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사법 정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치열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법이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순한 정의의 도구라는 막연한 것이었으나, 실제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며 법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때로는 냉혹하리만치 엄격한 논리의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 중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합성대마 불능미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경험은 저에게 커다란 지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을 하겠다는 확고한 범죄 의사를 가지고

실제 흡입 행위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조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가지는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 권력의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죄형 법정주의가 왜 민주 사회에서 타협 불가능한 대원칙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예민함은 이어 진행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에서도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쏟아낸 수많은 약속이 단순히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시정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은 마치 거대한 사회적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실무자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자료 속에서 '추진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진척도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연되는 사업들을 날카롭게 찾아내어 기록하는 과정은 시민의 감시가 없는 권력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적 소비자'로서, 공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법정 모니터링 현장은 이러한 법리와 행정의 결과물들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가장 뜨거운 장소였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정적과 엄숙함, 판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날선 공방은 종이 위에서만 보던 법을 입체적인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태도 하나,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의 정당성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사법 신뢰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의 작은 배려와 공정함에서 싹튼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법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진정한 민주사회의 척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배운 차가운 법리와 공약

조사에서 느낀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본 인간적인 고뇌들을 하나로 엮어내며 저는 법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윤활유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법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법이 닿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고도 냉철하게 살피는 전문가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바라보고 행정의 약속을 검증하며 법정의 공정함을 지켜본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법치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내면화한 가장 밀도 높은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최 ○ 옥

올해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에 합격하게 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활동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보던 중에 법률소비자연맹 단체를 발견했고 다양한 활동과 비대면이라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처음 접해봐서 낯설게 느껴졌는데 봉사 후기를 살펴보면 이 단체가 언론, 법률, 법정 등의 많은 분야에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 나도 약간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

먼저 나는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였다. 판결문의 주제는 스톡킹,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으로 총 5개를 조사하였다. 법률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헌법과 형법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민법은 다소 낯설었기에 민법에 치중한 판결문리서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교적 형사 판결문은 첫 판결문리서치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였지만 민사 판결문은 긴 분량, 원고와 피고 간의 입장 차이, 논리 구조 등으로 인하여 판결문을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 당사자들의 경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소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느리지만 정확하게 판결문을 요약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점차 민사 판결문을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나는 판결문리서치가 앞으로의 법률 관련 대외 활동과 지

금 활동하고 있는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활동에 큰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을 조사하였는데 나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의 공약의 이행률 및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해야 했다. 생각보다 공약 이행률이 높아 신기하였고 그 이행률의 수치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적으로 게시되어 있고 이를 조사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인에게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이유 모를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 것이 맞지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기사에서 접하니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과정 자체는 자료가 적어 수집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지만 그 시간의 깊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재판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아쉬운 활동이었다. 사실 재판 방청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행정재판 등 방청하였지만 엑셀에 기재한 사항은 서울서부지법만을 작성하였다. 재판 모니터링 신청을 늦게 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 방청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다양한 재판 방청의 경험을 통하여 재판 방청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가장 쉽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재판의 방식, 흔히 말해 공장처럼 돌아가는 재판 과정이 아쉽기도 하고, 인원 부족의 현실감이 크게 느껴져 쓸쓸하면서도 판사님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어 측은지심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처음이었지만 기관 측에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셔서 다소 수월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큰 감사함을 느꼈다. 다만 번역 봉사, 언론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여 스스로의 아쉬움을 느꼈다. 만약 다음에 다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봉사활동을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특히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신뢰성이 사실인지 궁금하기에 언론 모니터링에 대해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동국대학교 하 ○ 진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읽다: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한 시간

가을학기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한 법률소비자연맹의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단순한 업무 지원을 넘어 깊은 배움과 성장을 안겨주었다.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헌법 번역 활동은 낯선 국가들의 근간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외국어 텍스트를 옮기는 것을 넘어 각 국가에 대한 소개글을 함께 작성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깊이 있게 조사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다.

판결문 리서치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일상과 밀접한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법의 언어가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결의 이유와 논리가 납득하기 쉽게 설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의미 깊었다. 법률적 사고방식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법이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설득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기 활동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을 조사하면서 지자체들이 '지역 활성화'와 '청년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놀라웠던 것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의 내용과 이행률이 인포그래픽 등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끄럽게도 이번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전까지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발견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의 공약이 먼 정치의 영

역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삶을 직접 바꾸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지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학기의 봉사활동은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동적인 거주자에서 벗어나 사회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자세를 갖추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 고려대학교 하 ○ 정

법을 공부하며 정의를 꿈꾸는 학생에게 '법'은 오랫동안 책장 속에 정제된 텍스트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이러한 정적인 법의 개념을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실천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전망을 점검해 보고자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경험은 입법과 사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이어진 다양한 활동들은 저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법률 소비자로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중 있게 참여한 활동 중 하나는 세계 각국 헌법 번역 봉사였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안도라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헌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을 번역하면서 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권이 법 문장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체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 하나의 선택이 해석과 의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감했습니다. 각 국가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겨울 봉사의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는 시민주권의 의미를 체감하게 한 실천적 경험이었습니

다. 저는 안동시와 영양군의 군수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당시 제시된 약속들이 실제 행정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거에서 시민과 맺은 약속이 실제 행정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과 정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률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준 경험이었습니

다. 법은 결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의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법적 가치와 제도를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서 자료와 근거에 기반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법을 공부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

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묵시적 갱신에 문제된 사안을 분석하면서, 법률이 개인 간의 계약을 넘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지는 것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적인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다수 법률 위반 행위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산업재해 예방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법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이 취임 이후 실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자료에 명시된 세부 추진 계획, 분기별 이행 실적,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 내역 등을 대조하여 공약의 달성도를 평가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정책 이행 여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오직 공개된 정보공개 자료와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이행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류되거나 지연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행정 감시라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실무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34시간의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추상적인 법과 행정 이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공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이는지 체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판례를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쟁점을 정리하는 일은 법률 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사회에 공유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일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업과 실무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개인적인 성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